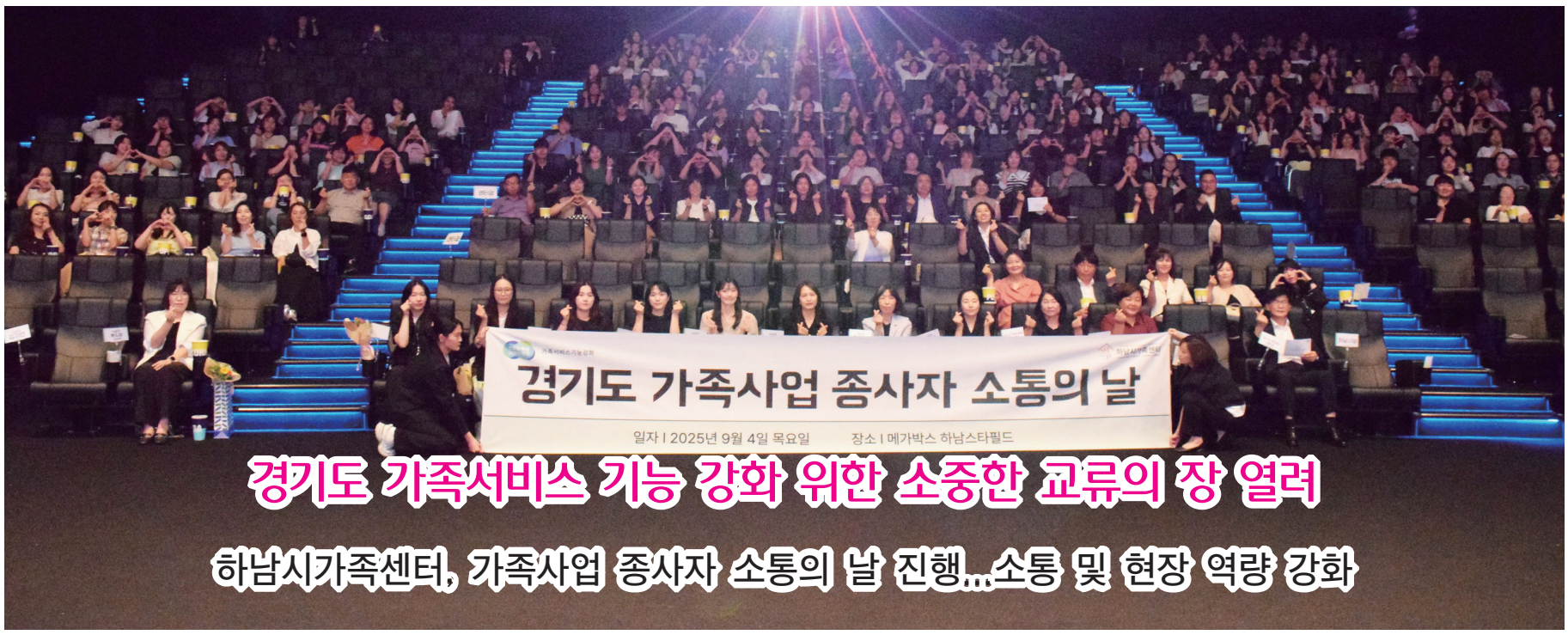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01호 2025년 09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쥬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경기도 가족서비스 기능 강화 위한 소중한 교류의 장 열려

하남시가족센터,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진행...소통 및 현장 역량 강화

경기도와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4일 하남스타필드 메가박스에서 '2025년 경기도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가족사업 종사자들이 상호 소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장, 박명호 경기도가족센터협회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경기도 내 가족센터 종사자 및 시군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현재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족센터 종사자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돌보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며 종사자의 인권과 행복을 기원했다.

윤영미 국장은 "오늘은 경기도 35개 센터, 820여명의 종사자가 소통하는 날"이라며 "가족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가족 돌봄은 지역사회의 가용성을 높이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도의원은 "교류와 힐링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시민과 함께 가족복지를 위해 일해 달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윤태길 도의원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사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우수사례 발표(2건) ▲가족정책 유공자 10명 표창(공무원 2명, 민간 8명) ▲힐링 문화프로그램(영화관람)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실천 사례를 나누며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 내 33개 센터에서 모인 종사자들은 이번 소통의 자리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문병용 센터장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소통의 날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면에서 계속〉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21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1, 17, 28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1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1, 17, 28 영어(English) 4, 15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13, 21, 23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8, 10, 31 나의 학습 My Study 12, 18, 27, 30 이주배경청소년 7, 33 외국인주민 4, 29 보건 Health 2, 16 여가 Leisure 12 행사 Event 1, 2, 6, 14, 17, 23, 25, 36 안전 Safe 5 복지 Welfare 8 상담 Consultation 4, 9, 11, 21 행정 Administration 13, 15, 23, 28 육아 Child Care 9, 18

가족복지,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경기도, '2025년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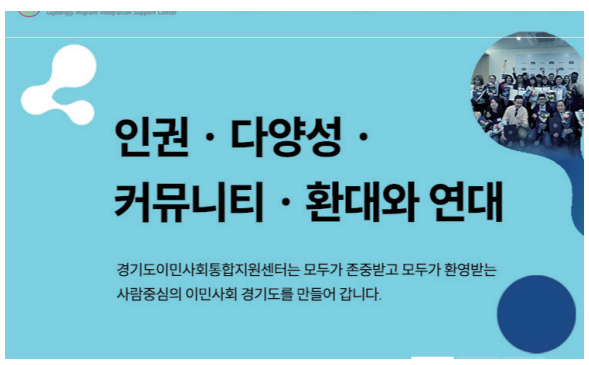
〈1면에서 이어짐〉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27개 가족센터와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4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35개 센터에 820여 명의 가족사업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은 특히 긴급돌봄, 다문화가정 지원 등 특화사업을 통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가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가족사업 종사자들께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모두에게 의료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경기도 '다건넷' 본격 가동...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해



경기도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5년 '다같이 건강한 보건의료 네트워크(이하 다건넷)'를 출범시켰다.

다건넷은 이주민을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의 대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도내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건넷은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의료비 부담, 의료통역 지원, 사례 관리, 교육/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강권 취약 계층의 복합적 문제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관별 자원과 전문성을 연계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 이주여성의 출산을 지원한 사례는 다건넷의 활동 방식과 실질적인 성과를 잘 보여준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 위기에 처한 산모 지원을 위해 라파엘 클리닉, MA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희년의료공제회 등 다양한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출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오경석 대표는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공공의 역량과 민간 역량의 긴밀한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과제"라며 "다건넷이 건강권 취약 계층의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건넷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천연합병원, 향남공감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민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희년의료공제회 등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031-853-9347

송하성 기자

이인애 의원 발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스마트폰 중독 예방 특강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8월 24일과 31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부모의 올바른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초등 저학년 학부모(8월 24일) △초등 고학년 학부모(8월 31일)를 구분하여 운영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발달 단계별 스마트폰 사용 이해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과 대처법 △부모·자녀 소통 기반 훈육 방법 △가정 내 스마트폰 사용 규칙 수립 등이 다뤄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실천 가능한 가정 규칙을 직접 설계하며 생활 속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의 발달 특성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학부모는 "가정에서 오늘 만든 스마트폰 규칙을 아이와 함께 실천해보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번 특강을 통해 부모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녀와 함께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디지털 관련 교육을 확대해 세대 간 소통과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 제11회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 개최

수원시는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제11회 말하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 부문과 이중언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주제는 각각 'K-문화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K-문화'다.

이번 대회는 한국어와 다양한 언어를 매개로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다. 참가자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느낀 한국 문화를 자유롭게 발표하며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한국어 부문은 한국어로만 진행되며, 이중언어 부문은 한국어와 참가자의 모국어를 병행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K-문화'를 주제로 음악, 음식, 드라마, 전통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계획이다.

행사 당일에는 축하공연과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수원시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경연의 장이 아니라 축제의 무대로 확장해 참가자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가을! 수원 3대 축제 돌아온다

수원 가을 3대 축제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

수원시 3대 가을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돌아온다.

수원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수원 대표 가을 3대 축제 부서별 추진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지원 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행궁광장, 화성행궁,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축제'를 기조로 기획했다. 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8일로 늘어났고, 축제 공간은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장됐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한다.

2025 정조대왕능행차는 9월 28일 열린다.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거점 공간이 기존 장안문에서 행궁광장으로 변경했다.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6일 동안 열린다. '만천명월(萬川明月) :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테마로 정조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여민동락의 세상을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시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3대 가을 축제가 수원의 품격을 높이고, 수원이 세계 속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수원시는 가을 3대 축제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수원시민과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지은 기자

“The Gyeonggi Province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supports the challenges faced by migrant women in Gyeonggi.

Gyeonggi Province's first counseling center for immigrant women,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Director Lee Young-ah), opened its doors in Dang-dong, Gunpo City on August 28 and began full-scale operations.

The Gyeonggi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operated by the non-profit organization "Asia Window," provides diverse counseling services to migrant women in need through it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upport team. It also offers a variety of services, including medical assistance, legal aid, and emergency shelter referrals.

The opening ceremony began with a viewing of "Voices of Migrant Women Through Video," followed by congratulatory remarks from distinguished guests.

In her progress report, Director Lee Young-ah stated, "The Gyeonggi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will continue to provide specialized counseling services to migrant women victims of violence, regardless of their residency status. Through this, we will support the safety of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nd help them return to their daily lives. Furthermore, we will establish 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eam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migrant women and help them achieve self-reliance.“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onsultations at the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s in Seoul and Incheon were from migrant women in Gyeonggi Province shows the need for a specialized center,” said Jeong Yun-gyeong, Vice-Chairperson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who put a lot of effort into opening the center. “I hope that the center will establish itself as a control tower and provide practical help to migrant women who are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such as victims of violence, residency status, and legal and medical issues.”

The opening ceremony concluded with a talk concert with immigrant women, a plaque unveiling ceremony, and commemorative photos. Despite the center's relatively small space, the event was packed with guest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d immigrant women to celebrate the opening.

The Gyeonggi Province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offers comprehensive services, including violence victim counseling and aftercare, psychological recovery programs, legal advice, and referrals, with professional staff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including Vietnamese, Chinese, Uzbek, Filipino (English), Thai, and Spanish. They also connect with shelter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when necessary.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Migrant women can receive counseling by phone (031-429-7919) or in person, weekdays from 9:00 AM to 6:00 PM.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as well as access to the Danuri Call Center (1577-1366, open 24/7, 365 days a year), eliminate language barriers.

Kim Won-gyu, Director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who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said, "I congratulate the Gyeonggi Province Migrant Women's Counseling Center on its final opening. The center will serve as a crucial foundation for Gyeonggi Province to realize diversity and inclusion." He added, "Migrant women face various challenges in Korean society,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life. I hope the center will actively provide assistance. 〈중략〉

이주민 권익과 안정적 정착 협력

수원외복-㈜금호손해사정법인,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9월 12일 ㈜금호손해사정법인(대표이사 양회영)과 이주민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에게 보험 및 손해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보상 절차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금호손해사정법인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교육 실시, 합리적 수수료 기준 적용, 사고 대응 및 보상 절차 안내 자료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상담 서비스 홍보 및 안내, 교육 장소 제공, 통역 지원 등 제반 협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주민과 손해사정법인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돕는 중간 연계자로서의 역할 수행,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금호종합손해사정법인 경기지사 김영찬 소장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손해사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앞으로도 이주민 관련 손해사정 자문 및 실무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주민들이 사고를 겪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금호손해사정법인 김영찬 소장은 “우리 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이 억울함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자녀 위한 따뜻한 동행

수원외복-목우미술학원, 업무협약 체결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9월 10일 목우미술학원(대표 모민수)과 함께 취약계층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미술 재능을 계발하고, 진로 탐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수준 높은 미술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이주민 가정을 돕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교육 정보와 지원을 꾸준히 나누며 협력 체계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목우미술학원과의 이번 만남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담긴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의 기자

대한민국에서
더욱 안전해지는 방법
Emergency Ready App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의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세요!
• 제공내용 긴급알림, 대피소 정보, 안전수칙, 응급의료센터·경찰서·소방서 위치 등
•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 2025년 8월부터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14종 언어 추가 제공
Android app
iPhone app
112 119 긴급신고 바로
긴급신고 바로 앱
위험 상황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신고방법 그림이나 문구로 신고 가능
•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 급하면 112(범죄 신고), 119(재난·안전사고 신고)로 전화해 주세요.
Android app
iPhone app
국민안전 교육플랫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 교육분야 일상생활 안전, 교통 안전, 재난안전, 범죄 안전, 보건 안전
•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Homepage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ow to Stay Safe in Korea
Emergency Ready App
Get real-time disaster information wherever you are!
• Available Features
Emergency alerts, evacuation shelter locations, safety guidelines, and nearby emergency services (medical centers, police stations, and fire stations)
• Available Languages
English, Chinese, Japanese, Thai, Vietnamese
* From August 2025, 14 additional languages, including Spanish and French, will be offered.
Android app
iPhone app
112 119 긴급신고 바로
Emergency Reporting App
Report emergencies quickly and easily!
• How to Report
Select images or texts to report.
• Available Languages
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ese, Filipino
* In urgent situations, please call 112 for crimes or 119 for disasters and safety-related incidents.
Android app
iPhone app
National Safety Learning Platform
Learn how to prepare for disasters and safety-related incidents!
• Training Topics
Everyday safety, traffic safety, disaster safety, crime prevention, health and hygiene safety.
• Available Languages
English, Chinese, Japanese, Thai, Vietnamese
Homepage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ách giúp bạn an toàn hơn
Tại Đại Hàn Dân Quốc
Khai báo khẩn cấp Ứng dụng Ngay ở đây
Hãy nhận thông tin thảm họa cho vị trí hiện tại của bạn theo thời gian thực!
• Nội dung cung cấp
Cảnh báo khẩn cấp, Thông tin nơi trú ẩn, Quy tắc an toàn, Vị trí Trung tâm y tế khẩn cấp · Đồn cảnh sát · Trạm cứu hỏa
• Ngôn ngữ cung cấp
Tiếng Anh, Trung Quốc, Nhật Bản, Thái Lan, Việt Nam
※ Từ tháng 8 năm 2025 sẽ cung cấp thêm 14 loại ngôn ngữ như Tiếng Tây Ban Nha, Pháp v.v
Android app
iPhone app
112 119 긴급신고 바로
Khai báo khẩn cấp Ứng dụng Ngay ở đây
Bạn có thể khai báo dễ dàng trong tình huống nguy hiểm!
• Cách khai báo
Có thể khai báo bằng hình ảnh hoặc tin nhắn
• Ngôn ngữ cung cấp
Tiếng Anh, Trung Quốc, Nhật Bản, Việt Nam, Philippines
※ Trong tình huống cấp, hãy gọi đến số 112(khai báo tội phạm), 119(thảm họa, tai nạn an toàn)
Android app
iPhone app
Nền tảng giáo dục an toàn quốc dân
Bạn có thể học cách ứng phó với thảm họa và tai nạn an toàn!
• Lĩnh vực giáo dục
An toàn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an toàn giao thông, an toàn thảm họa, an toàn tội phạm, an toàn sức khỏe
• Ngôn ngữ cung cấp
Tiếng Anh, Trung Quốc, Nhật Bản, Thái Lan, Việt Nam
Homepage
행정안전부
Bộ Hành chính và An toàn toàn

大韓民国で
より安全に暮らす方法
緊急対応アプリ
今いる場所の災害情報を
リアルタイムで受け取れます!
• 主な機能 緊急のお知らせ、避難所情報、安全のためのポイント、救急医療センター・警察署・消防署の場所など
• 対応言語 日本語、英語、中国語、タイ語、ベトナム語
※ 2025年8月から、スペイン語・フランス語を含む14言語に対応予定です。
Android app
iPhone app
112 119 긴급신고 바로
緊急通報 アプリ「バロ」
緊急時にも、スムーズに通報できます!
• 通報方法 写真やメッセージで通報できます
• 対応言語 日本語、英語、中国語、フィリピン語、ベトナム語
※緊急の際は、112(警察)または119(消防・救急)にすぐお電話ください。
Android app
iPhone app
防災・安全教育 プラットフォーム
災害や事故への備えを学べます!
• 教育分野 身近な安全、交通安全、災害への備え、防犯、健康・衛生
• 対応言語 日本語、英語、中国語、タイ語、ベトナム語
Homepage
行政安全部

내외국인 함께 평화와 문화 다양성 실현하는 이주민 축제 열린다!

'2025 경기 HOME Festival' 9월 21일 개최...'모두의 홈 경기도'에서 축제의 장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평화와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이주민 축제의 장이 경기도에서 열려요. 모든 외국인주민은 이번 축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9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있는 경기평화광장에서 '2025년 경기 홈(HOME) 페스티벌'을 개최해요.

'함께 성장하고 어우러지는 공동체 경기도'를 만들고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즐기는 행사로 마련된 이날 축제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다채롭고 흥겨운 공연 펼쳐진다

11시에 시작되는 식전행사는 '우리는 하나' 주제의 마술 등 공연과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이민사회 공동체선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식전행사에는 경기도 홍보대사 옹알스의 코미디 공연과 네팔 무용단 전통공연, 미얀마 카렌족 출신 가수 완이화의 공연 등 남녀노소,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요.

오후 3시에 시작되는 기념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에요. 또 안산과 성남, 화성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합창단이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에요.

이후에 진행되는 축하공연에서는 OBS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이 연계돼 진행돼요. ▲브브걸 ▲울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싱어게인2) 등이 출연하며 무대 밖 행사장 곳곳에서는 중고플리마켓, 커뮤니티 부스, 푸드트럭 등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먹거리, 체험, 전시의 장 열린다

경기평화광장을 가득 메울 먹거리, 체험, 공연, 홍보, 전시 등 압도적인 규모의 참여부스도 열려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9개 기관이 11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시가족센터, 성남시가족센터(외복팀)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7개국 42개의 부스도 내외국인의 먹거리를 책임질 예정이에요. 48개 팀이 참여해 어린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주말에 나들이를 나올 내외국인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요.

경기도청 관계자는 "9월 21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로 이제 내외국인 모두의 홈(HOME)이 된 경기도에서 즐거운 행사를 함께 했으면 한다"며 "경기홈페스티벌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9월 21일, 모든 외국인주민은 경기도 평화의광장으로 모여요!

〈베트남어 17면, 러시아어 하단, 태국어 17면, 몽골어 23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Фестиваль мигрантов, где коренные жители и иностранцы вместе воплощают мир и культур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2025 경기| HOME Festival' состоится 21 сентября

Фестиваль мигрантов, где жител и Кёнгидо 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в месте воплощают мир и культурно е разнообразие, пройдёт в Кёнгидо. Всем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этот фестив аль.

Кёнгидо (губернатор Ким Дон ён) проведёт «2025 경기| HOME Festival» 21 сентября с 11:00 до 17:00 на площади Мира при северн ой резиденц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 винции Кёнгидо.

Фестиваль,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как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общения и совме стного отдыха коренных жителей и иностранцев в рамках создания «с ообщества Кёнгидо, которое растё т вместе и объединяется», предло жит множество развлечений, зрели щ и вкусной еды.

Разнообразные и весёлые высту пл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 торая начнётся в 11:00, включает в ыступления на тему «Мы — единое целое», конкурс танцев среди подр остков и декларацию сообществ м игрантов.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ной станет про грамма с участием комедийного ш оу Ongals,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посла ми Кёнгид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анцев 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из Непала и вы ступления певицы Ван Ихва, уроже нки народа карен из Мьянмы. Это б удут яр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ми смогут наслаждаться все — и коре нные жители, и иностранцы, и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В 15:00 начнётся официальная ц еремони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губернатора Ким Донёна и министр а юстиции Чон Сонхо. Также совме 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дставят мул ьтикультурные хоры из Ансана, Со ннама и Хвасона.

Завершит фестиваль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объединённый со с пециальной публичной трансля цией OBS Radio. На сцену выйду т ▲BBGIRLS ▲Ulala Session ▲In A Minute ▲Ли Минджон (участница шо у «Sing Again 2»).

За пределами сцены такж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блошиный рынок, темати ческие павильоны и фудтраки.

Пространство еды, мастер-класс ов и выставок

На площади Мира откроются мас штабные павильоны с едой, масте р-классами, представлениями, рек ламными и выставочными зонами.

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ключая Янджу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 ам миграци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11 стендах,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иност ранных жителей. Также 42 стенда о т час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мультикул 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из Ансана, Пхадж у, Соннама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предс тавляющие 17 стран, будут угощат ь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блюдами как ко ренных жителей,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е 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ает бл ошиный рынок детских подержанн ых вещей, в котором примут участи е 48 команд. Он обещает подарить уникаль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и всем, кто придёт провест и выходн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 ёнгидо отметил:

«21 сентября — это Международ дный день мира, установленный О ОН.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се — и коре нные жители, и иностранцы — вме сте насладились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в Кёнгидо, ставшем общим домом (HOME). Надеемся, что фестиваль станет значимым временем для по нимания и обмена культурами».

21 сентября все иностранные жи тели собираются на Площади Мир а в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상단〉

수원화성 관광 자원 홍보 강화

수원시, 9월~12월 일본과 중화권 대상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9월부터 12월까지 일본과 중화권을 대상으로 수원 대표 관광 자원의 홍보를 강화한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등 수원시 가을철 대표 축제가 열리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주요 홍보 대상 국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상위 3개국인 중국, 일본,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중화권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화권을 대상으로는 짧은 영상 소비가 활발한 특성을 반영해 다수의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중국 현지 채널인 샤오홍수에 2건, 대만·싱가포르 등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에 숏폼 6건을 게시해 사진과 짧은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중국 유학생 출신 크리에이터 '타이위'가 수원화성문화제와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는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일본 시장에는 다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제작하고, 실시간 방송·동영상 플랫폼 '믹스채널'을 활용해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팔로워 1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SNS) 기자단 30명을 선발해 수원화성문화제와 지역 관광 매력을 홍보하고, '수원 관광 앰배서더 오디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쿄 시부야구 우치가와쵸에 있는 산루이빌딩 메가월, JR하카타역 시티비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옥외 매체에는 15초 분량의 관광 영상을 광고한다. 시부야에서는 하루 30회, 하카타에서는 하루 72회씩 송출한다. 송하성 기자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발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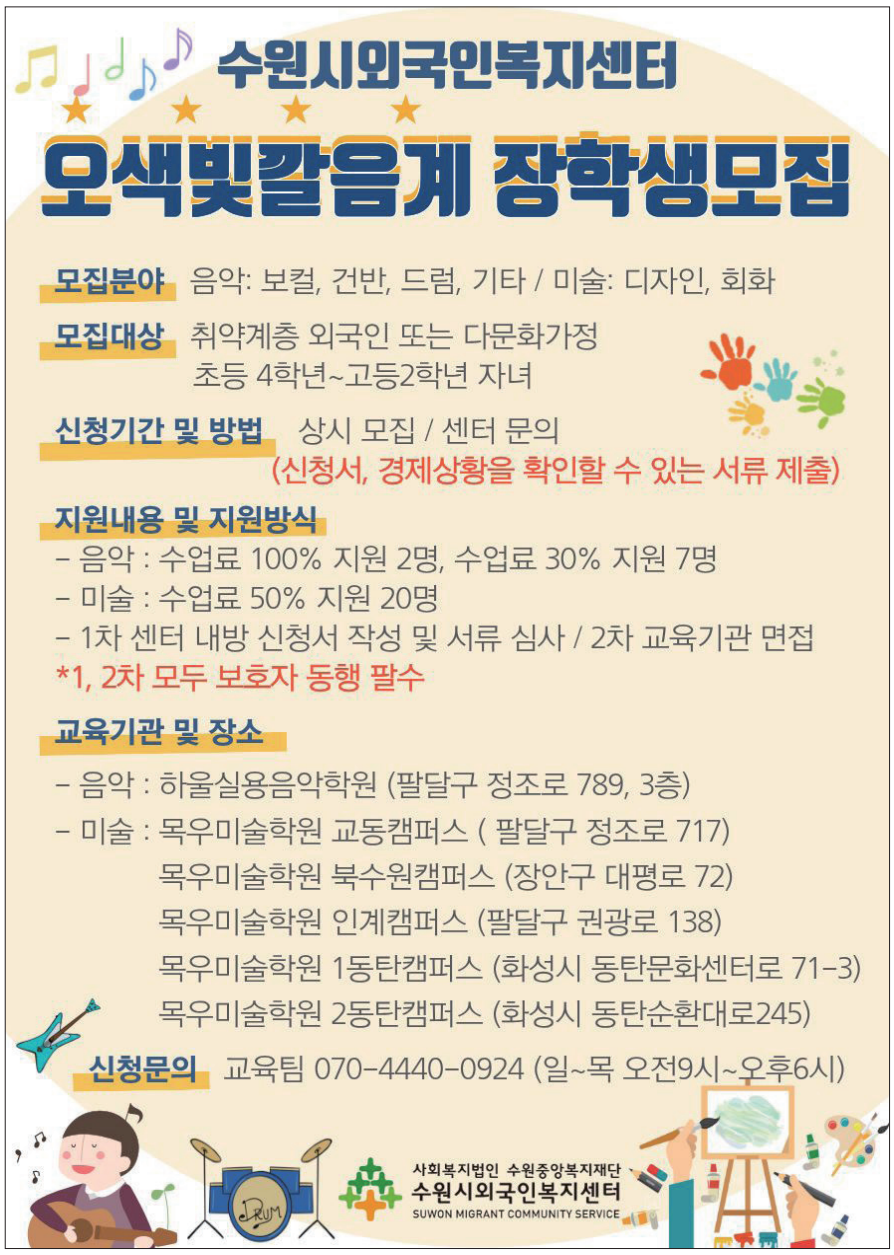
수원글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협약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 센터장과 관계자가 함께했다.

양 기관은 ▲지식·정보·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발굴, 프로그램 연계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과 조력 ▲기타 필요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새빛만남-수원, 마음을 듣다'

이재준 시장, 44개 동 방문 주민 목소리 경청

'2025 새빛만남'을 시작한 이재준 수원시장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수원시가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매교동 주민들과 2025년 첫 새빛만남을 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는 이재준 시장이 수원시 모든 동(44개)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에게 시정 주요계획과 각 동의 마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민원을 신청한 주민들도 만난다. 8일 매교동에서 시작된 2025 새빛만남은 12월 4일 매탄4동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특례시, 생활특례시, 돌봄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원기업새빛펀드, 기업·투자 유치, 새빛하우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등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또 수원의 미래를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대화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밝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매교동 주민들은 ▲매교동복합청사 신속하게 착공 ▲초등학교 등하굣길 청소 ▲학교 앞 거리 안전 강화 ▲청소년 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다.

송하성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아빠가 빛나는 학교-파파와 힐링 나들이'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6일 오산시 관내 아버지와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아빠가 빛나는 학교-파파와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안성팜랜드에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기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동물 먹이 주기 체험을 비롯해 UFO범퍼카, 깡통열차, 교통체험, 가축놀이 한마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농장에서 체험하며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들 또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즐거움과 배움이 어우러진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법복 체험부터 문화공연까지 함께

오산시가족센터, 수원가정법원과 결혼이민자 법원 체험 진행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9월 8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수원가정법원이 주최한 다문화가정 초청 문화공연에 참여해 '수원가정법원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사법 제도와 법원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둘러보며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했고, 법복을 직접 착용해보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법원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퓨전국악 밴드의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혔다.

한 결혼이민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 법복을 입어보는 체험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법원이라는 곳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훨씬 가깝게 다가올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병희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법과 제도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생활 적응과 문화 이해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이번 수원가정법원 투어를 시작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가족 추억 꾸미는 '가족사랑의 날' 진행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0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등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가족사랑의 날 사업에서 '그림책테라피로 여는 우리 가족 이야기 앨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그림책테라피를 통해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고, 앨범 워크지를 통해 기록하며 가족의 이야기를 새롭게 담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크스크린을 활용해서 가족 최고의 순간을 꾸며보았다.

이 모씨는 "앨범을 함께 꾸미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 수 있었고, 실크스크린 체험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사랑의 날은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가족 간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가족사랑의 날 사업의 프로그램은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지급

오산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1월30일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의 사용하면 된다.

신청 방식 역시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오프라인(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은행 영업점)으로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보험 유형별 상한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보험은 51만원, 지역보험은 50만원, 혼합 유형은 52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소비쿠폰 TF팀 또는 전담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쿠폰은 오산시민 2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약 392억원이 지급돼 98.9%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김영의 기자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Первы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в Кёнгидо —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директор Ли Ён-а)» — открылся 28 августа в районе Тандон, город Гунпо, и начал полноценную работу.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е которым осуществляет «Корпорация Asia's Window», через группу переводчиков и уст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 проводит различ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дл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нуждающихся в помощи,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трудностей. Также центр предоставляет широкий спектр услуг: медицинская поддержка, юридическая помощь, экстренные приюты и др.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начала посмотрели видео «Голоса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после чего прозвучали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речи гостей.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Ли Ён-а в отчёте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заявила: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в будуще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насилия мигрантка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Через это мы будем помогать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и их семей и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Кроме того, мы создадим команду переводчиков, чтобы укреплять потенциал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и помогать им станови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амблеи Кёнгидо Чон Юн-гён, которая приложила много усилий для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сказала: «То, чт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нсультаций, проведённых в центрах Сеула и Инчхона, касалась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из Кёнгидо, показыв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центра. Я надеюсь, что центр станет контрольной башней и окажет реальную помощь женщинам-мигрантам, сталкивающимся с различ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 от насилия и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до юридических и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блем».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завершилась ток-концертом с участием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а также церемонией открытия таблички и памятным фотографированием. Центр оказался тесноватым, а из-за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гостей и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пришедших поздравить, внутри царила оживлённая атмосфера.

В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дл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работ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владеющие вьетнамским, китайским, узбекским, филиппинским (английским), тайским, испанским и другими языками.

Он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комплексные услуги: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фактам насилия и последующе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юрид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друг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ключая приюты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Женщины-мигрантк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телефону (031-429-7919) или при личном визите в будние дни с 9:00 до 18:00. Благодаря услугам перевода и связи с колл-центром Данури (1577-1366, круглосуточно, 365 дней в году) можно преодолет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Кёнгидо Ким Вон-гю,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на открытии, сказал: «Поздравляю с открытием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женщин-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Центр станет важной осново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инципов разнообразия и инклюзивности в Кёнгидо. Женщинам-мигранткам в Корее непросто, он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множеством трудностей. Я надеюсь, что центр будет активно помогать им. Кёнгидо и впредь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внимательную политику на уровне провинции ради построения безопасного общества без дискриминации и насилия».

Иностранные SNS-журналисты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사회성 발달 및 진로탐색 지원

오산시가족센터, 진로설계지원사업 진행

오산시가족센터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학업.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진로설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집단컨설팅 ▲진로동아리 ▲1:1 컨설팅 ▲1:1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집단상담에서는 미술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 게임을 통한 사회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또래와 협력하는 기회를 얻었다.

집단컨설팅은 학습 영역에 중점을 두어, MLST 학습전략검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유형을 탐색하고 시간 관리 및 목표 설정 방법을 배우며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익혔다.

진로동아리 활동에서는 다중지능이론을 기반으로 공간지능을 키우는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붕어빵 비누 만들기'가 진행돼 참여 청소년들은 협력 속에서 자기 강점을 탐색하는 경험을 쌓았다. 또한 1:1컨설팅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 개개인의 학과 선택과 대학 진학에 대한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졌다. 1:1상담에서는 다중지능검사와 TCI(기질 및 성격검사)를 활용해 자기 이해를 돕고 진로 탐색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진로설계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학업.진로.정서 측면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오산 국공립어린이집 3곳 개원

오산시, 다문화 장애아 등 취약보육 지정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9월 3일 시립중흥에듀파크어린이집 개원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시립중흥에듀하이어린이집과 시립한신더휴어린이집 개원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규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 연장 보육, 장애아 통합 보육, 다문화 보육, 영아 보육 등 두 가지 이상의 취약 보육을 지정 운영해 다양한 가정의 보육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특성을 고려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총 9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내년에도 4곳을 추가 개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어린이집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보육 교직원 채용, 기자재 구입, 입소 아동 모집 등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문을 열었다.

현재 시립중흥에듀파크어린이집(원장 노하정)과 시립중흥에듀하이어린이집(원장 백영순)은 3월 4일부터 운영 중이며, 시립한신더휴어린이집(원장 이기영)은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첫 개원식에 참석해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세계문화체험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겁게!

구리시가족센터,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세계문화체험 진행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최근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4일 오전에는 시립새빛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적도기니 문화체험편이 실시됐다. 어린이들은 적도기니 전통의상 체험과 전통 악기를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 만들었다. 9월 6일 오전에는 한뜻더함발달센터 아동 6명을 대상으로 중국문화체험교육이 실시됐다. 어린이들은 노래로 중국 인사말을 배우고, 중국 대표 동물 판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국 전통의상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9월 9일 오전에는 시립동구어린이집 만 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10일에는 더샵어린이집 만 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국문화체험편이 진행됐다.

9월 11일 오전에는 인창어린이집 만 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도기니 문화체험편이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적도기니 인사말, 위치 등을 알아보며 전통놀이, 전통의상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12일 오전에는 역시 인창어린이집 7세 아이들 10명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체험편이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일본의 전통놀이인 켄다마, 다루마오또시 놀이, 전통의상체험 등을 진행했다.

대부분 문화체험에 결혼이민자들이 강사로 나서 더욱 실감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구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세계문화체험이 어린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문화체험 기관 신청 문의는 070-7775-6978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신혼부부 주거 안정 실질적인 도움 될것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에 같게 등록된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구다. 031-550-2404 이지은 기자

구리시, 역사문화 탐방 '망우 4인 4색' 모집...회차별 20명 선착순, 다문화가족도 참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망우 4인 4색' 참가자를 9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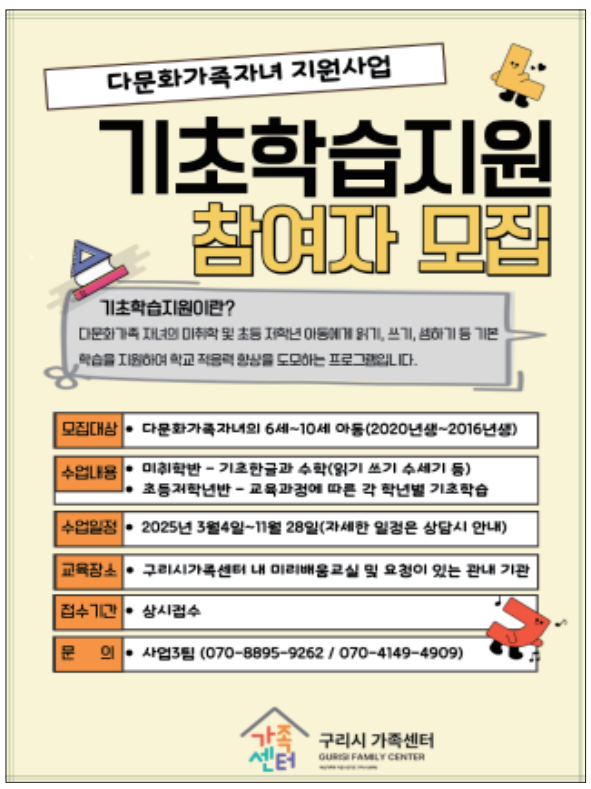
'망우 4인 4색'은 망우리공원에 잠든 네 인물의 삶과 업적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살펴보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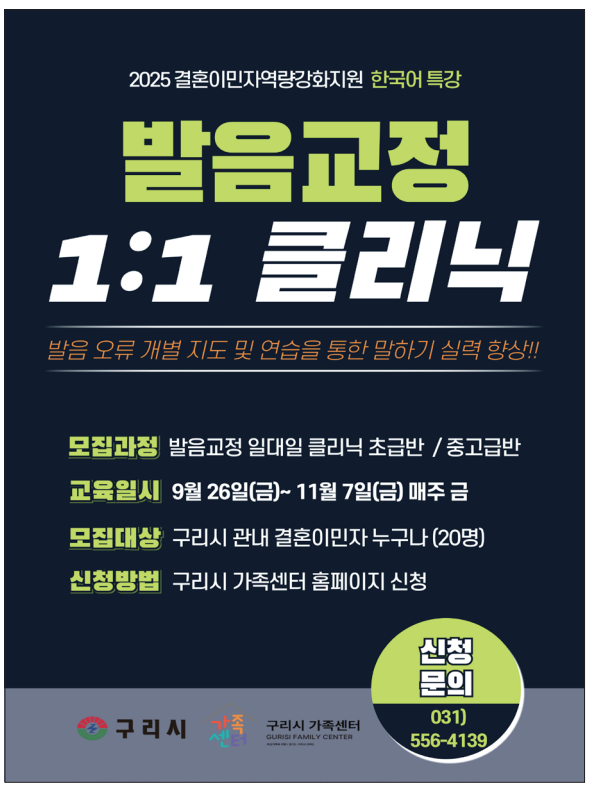
탐방 대상 인물은 ▲봄날 노란 개나리처럼 희망을 선물했던 '어린이들의 산타' 방정환 선생, ▲여름날 짙은 녹음처럼 절개와 지조를 지킨 '불멸의 아이콘' 한용운 선생, ▲가을 단풍처럼 불꽃같은 예술 인생을 살았던 '한국의 고갱' 화가 이인성, ▲겨울 첫눈 위 발자취처럼 진보적 길을 개척한 '선구자' 지석영 선생이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0월 18일, 25일과 11월 1일, 8일, 15일 등 매주 토요일 총 5회이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탐방 코스는 지석영 묘역을 시작으로 이인성 묘역, 방정환 묘역, 한용운 묘역 순으로 이어지며, 집결 장소는 망우리공원 '인물의 벽' 앞이다. 집결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9월 11일부터 11월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031-550-2565 이지은 기자





Khai trương Trung tâm Tư vấn Phụ nữ Di cư Gyeonggi, cung cấp dịch vụ tư vấn chuyên nghiệp và các chương trình nâng cao năng lực cho phụ nữ di cư.

Trung tâm Tư vấn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Giám đốc: Lee Young-ah), cơ quan tư vấn đầu tiên chuyên trách phụ nữ di cư của tỉnh Gyeonggi, đã chính thức khai trương và đi vào hoạt động từ ngày 28 tháng 8 tại Dang-dong, thành phố Gunpo.

Trung tâm Tư vấn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do "Hiệp hội Á Châu" điều hành, thông qua đội ngũ hỗ trợ phiên dịch và thông dịch, tiến hành nhiều dịch vụ tư vấn khác nhau để đảm bảo các phụ nữ di cư cần giúp đỡ không gặp bất tiện, đồng thời cung cấp các dịch vụ đa dạng như hỗ trợ y tế, trợ giúp pháp lý, liên kết nhà tạm trú khẩn cấp, v.v.

Trong buổi lễ khai trương ngày hôm đó, trước tiên mọi người đã xem "Tiếng nói của phụ nữ di cư qua video", sau đó lắng nghe phát biểu chúc mừng của khách quý.

Giám đốc trung tâm, bà Lee Young-ah, đã báo cáo tiến độ và cho biết: "Trung tâm Tư vấn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sẽ cung cấp dịch vụ tư vấn chuyên nghiệp cho phụ nữ di cư là nạn nhân bạo lực mà không phân biệt tư cách lưu trú. Chúng tôi sẽ hỗ trợ phụ nữ di cư và gia đình họ phục hồi an toàn và trở lại cuộc sống hàng ngày. Đồng thời, chúng tôi sẽ thành lập đội phiên dịch để tăng cường năng lực cho phụ nữ di cư, giúp họ có thể tự lập."

Ph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Jeong Yoon-kyung, người đã nỗ lực rất nhiều để khai trương trung tâm, cho biết: "Việc phần lớn các vụ tư vấn tại Trung tâm Tư vấn Phụ nữ Di cư ở Seoul và Incheon liên quan đến phụ nữ di cư từ tỉnh Gyeonggi cho thấy sự cần thiết phải thành lập một trung tâm chuyên môn. Chúng tôi hy vọng trung tâm sẽ trở thành "trung tâm điều phối" và mang lại sự hỗ trợ thực sự cho những phụ nữ di cư đang gặp phải nhiều khó khăn như bạo lực, tư cách cư trú, các vấn đề pháp lý và y tế."

Buổi lễ khai trương hôm đó kết thúc với talkshow cùng phụ nữ di cư, lễ treo biển và chụp ảnh lưu niệm. Do trung tâm hơi chật và để chúc mừng lễ khai trương, rất nhiều quan khách cùng phụ nữ di cư đã tập trung, tạo nên không khí náo nhiệt.

Trung tâm Tư vấn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cung cấp các dịch vụ toàn diện bao gồm tư vấn về bạo lực, quản lý sau tư vấn, chương trình phục hồi tâm lý, tư vấn pháp lý và kết nối với các dịch vụ liên quan, nhờ đội ngũ chuyên gia có khả năng tư vấn đa ngôn ngữ như tiếng Việt, tiếng Trung, tiếng Uzbekistan, tiếng Philippines (tiếng Anh), tiếng Thái, tiếng Tây Ban Nha, v.v. Khi cần, trung tâm cũng kết nối với các cơ sở như nơi tạm trú.

Phụ nữ di cư có thể nhận tư vấn qua điện thoại (031-429-7919) hoặc trực tiếp tại trung tâm từ 9 giờ sáng đến 6 giờ chiều các ngày trong tuần. Nhờ dịch vụ phiên dịch và kết nối với Trung tâm Cuộc gọi Danuri (1577-1366, phục vụ 24 giờ, 365 ngày/năm), mọi người có thể tiếp cận dịch vụ mà không gặp rào cản về ngôn ngữ.

Ông Kim Won-kyu, Giám đốc Cục Chính sách Cộng đồng Di cư tỉnh Gyeonggi, người đã tham dự buổi lễ khai trương, cho biết: "Xin chúc mừng Trung tâm Tư vấn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đã chính thức đi vào hoạt động. Trung tâm sẽ là một nền tảng quan trọng để tỉnh Gyeonggi thực hiện đa dạng và hòa nhập." Ông nói thêm: "Phụ nữ di cư gặp nhiều khó khăn trong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và họ đang phải đối mặt với nhiều thử thách khác nhau. Chúng tôi kỳ vọng trung tâm sẽ tích cực hỗ trợ họ. Tỉnh Gyeonggi cũng sẽ tiếp tục triển khai các chính sách tỉ mỉ nhằm xây dựng một xã hội an toàn, không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bạo lực."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ของสตรีย้ายถิ่นในคยองกี, ได้รับการโอบอุ้มและดูแลโดย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สตรีย้ายถิ่นคยองกี"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สตรีย้ายถิ่นคยองกี" (ผู้อำนวยการ อี ยองอา) ซึ่งเป็น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มุ่งดูแลสตรีย้ายถิ่นแห่งแรก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ได้เปิดทำการที่ย่านดังดงเมืองกุนโพ เมื่อวันที่ 28 สิงหาคมที่ผ่านมา และเริ่มดำเนินงาน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แล้ว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สตรีย้ายถิ่นคยองกี ซึ่งดำเนินงานโดยองค์กรไม่แสวงหากำไร "หน้าต่างแห่งเอเชีย" ให้การบริการหลากหลายด้าน เช่น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ผ่านทีมสนับสนุนการล่ามและการแปล เพื่อไม่ให้สตรีย้ายถิ่นที่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ต้องเผชิญกับ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บริการหลากหลายรูปแบบ เช่น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และโครง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ทางกฎหมาย, การเชื่อมต่อกับศูนย์ พักพิงฉุกเฉิน เป็นต้น

ในพิธีเปิดวันนั้น ได้มีการรับชมวิดีโอหัวข้อ "เสียงของสตรีย้ายถิ่น" เป็นลำดับแรก จากนั้นจึงเป็นการกล่าว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จาก แขกผู้มีเกียรติทั้งภายในและภายนอก

อี ยองอา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 กล่าวในการรายงานความคืบหน้าว่า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สตรีย้ายถิ่นคยองกี จะมอบบริ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อย่างมืออาชีพแก่สตรีย้ายถิ่นที่ตกเป็นเหยื่อความรุนแรง โดยไม่แบ่งแยกตาม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 พร้อมเสริมว่า "เราจะช่วยให้สตรีย้ายถิ่น 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ได้รับ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ละกลับมาใช้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ได้อีกครั้ง อีกทั้งยังจะจัดตั้งทีมล่ามและนักแปล 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ศักยภาพ ของสตรีย้ายถิ่นให้สามารถพึ่งพาตนเองได้ในอนาคต"

จอง ยุน-คยอง รองประธานสภา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ซึ่งได้ทุ่มเท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มากเพื่อการก่อตั้งศูนย์ กล่าวว่า "ข้อเท็จจริงที่ว่าจำนวน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สตรีย้ายถิ่นในกรุงโซลและอินชอนส่วนใหญ่เป็นสตรีย้ายถิ่นจาก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แสดงให้เห็นถึง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จัดตั้งศูนย์เฉพาะทาง" พร้อมเผยว่า "หวังว่าศูนย์แห่งนี้จะก้าวขึ้นมาเป็นเสมือนศูนย์กลางในการ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เป็นรูปธรรมแก่สตรีย้ายถิ่น ที่ต้องเผชิญกั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หลากหลายด้าน ไม่ว่าจะเป็นปัญหาความรุนแรง, 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 รวมถึงปัญห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 และ การแพทย์"

พิธีเปิดในวันนั้นปิดท้ายด้วยกิจกรรมทอล์คคอนเสิร์ตร่วมกับสตรีย้ายถิ่น และพิธีติดป้ายชื่อศูนย์ รวมทั้งการถ่ายภาพเป็นที่ระลึก เนื่องจาก ศูนย์มีพื้นที่ค่อนข้างจำกัด และมีแขกผู้มีเกียรติรวมถึงสตรีย้ายถิ่นมาร่วม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จำนวนมาก ทำให้บรรยากาศเต็มไปด้วยความ คึกคักและหนาแน่น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สตรีย้ายถิ่นคยองกี มีเจ้าหน้าที่ผู้เชี่ยวชาญที่สามารถให้คำปรึกษาในหลายภาษา เช่น ภาษาเวียดนาม, จีน, อุซเบก, ฟิลิปปินส์ (ภาษาอังกฤษ), ไทย, และสเปน เป็นต้น โดยให้บริการ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 ได้แก่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นแรง, การติดตามผลหลัง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โปรแกรมฟื้นฟูสภาพจิตใจ,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ละเชื่อมโยงทางกฎหมาย และหากจำเป็นยังสามารถประสานงาน กับศูนย์พักพิงหรือ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อื่นๆ ได้อีกด้วย

สตรีย้ายถิ่นสามารถรับคำปรึกษาได้ทางโทรศัพท์ (031-429-7919)หรือเข้ามารับคำปรึกษาได้ด้วยตนเอง ในวันธรรมดาตั้งแต่ เวลา

09:00–18:00 น. โดยมีบริการล่ามและแปลภาษา รวมถึงการเชื่อมต่อกับดานูรีคตอลเซ็นเตอร์ (1577-1366) ซึ่งให้บริการตลอด 24 ชั่วโมง ทุกวันตลอดปี 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เข้าถึงบริการได้โดยไม่มีอุปสรรคด้านภาษา

คิม วอนกยู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สำนักงานสังคมผู้ย้ายถิ่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ซึ่งเข้าร่วมพิธีเปิด กล่าวว่า "ขอ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กับการเปิดทำการของศูนย์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สตรีย้ายถิ่นคยองกี ในที่สุดศูนย์นี้จะเป็นพื้นฐานสำคัญในการสร้าง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ความครอบคลุม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พร้อมเผยว่า "สตรีย้ายถิ่นเผชิญ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หลายด้าน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ในสังคมเกาหลี ศูนย์จะเข้ามา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เต็มที่ เราคาดหวังว่าจะเห็นผลลัพธ์เชิงบวก และ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ยังคงสนับสนุนนโยบายอย่างรอบคอบเพื่อสร้างสังคมที่ปลอดภัย ปราศจาก 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และความรุนแรงต่อไป"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정이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 지역사회 어르신께 드려요"

남양주시가족센터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양주시협의회, 다문화 함께 샌드위치 특공대

남양주시가족센터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동북봉사관(관장 강성욱)은 지난 8월 30일 센터에서 특화 프로그램인 '샌드위치 특공대'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지난 2024년에 처음 시작한 '다문화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이어 지난 5월 가평군협의회가 김밥 특공대를 진행하고 이번에 남양주시협의회(회장 전유신)가 샌드위치 특공대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엄마와 자녀 그리고 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남양주시협의회 조은정 부회장은 샌드위치를 만들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사전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기고 신선한 먹거리를 위해 장보기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강성욱 관장의 적십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프로그램은 전유신 회장이 "오늘 엄마, 아빠와 우리 친구들이 같이 맛있고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갖다 드리겠다. 예쁘고 맛있게 잘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봉사관 주방에서 미리 손질하고 준비해 간 재료들을 펼쳐 놓고 1단, 2단, 3단까지 쌓으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샌드위치를 정성껏 만들었다. 이날 다문화가족이 만든 샌드위치를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아주 고마워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남양주시협의회 관계자는 "주말에 열린 행사로 시협의회 모든 임원들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전유신 회장을 비롯해 김행심 부회장, 박경주 총무부장, 김완중 감사가 조은정 부회장을 도와 장보기부터 어르신들께 전달까지 애썼다"며 "다문화가족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자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양주협의회

남양주시, 20살 생일 맞은 '광릉숲축제'...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숲

남양주시는 오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접읍 광릉숲 일원에서 '제20회 광릉숲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숲이다. 평상시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생태환경을 관리하는 구역이지만, 1년에 한 번 축제 기간에만 시민들에게 숲을 공개하며 광릉숲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왔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해 '광릉숲 스무 살' 팝업 스토어와 시민참여 공모전이 준비돼 그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광릉숲뚜벅이(숲길걷기) △광릉숲요가원(숲속요가) △광릉숲선생님(숲해설) △광릉숲만지작(체험) 등 광릉숲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친환경 축제 프로그램이 숲길 곳곳에 준비된다.

축제 기간 동안 광릉숲 곳곳에서는 △광릉숲테이지(버스킹) △광릉숲사진관(포토존) △광릉숲멍쉬멍(쉼터) 등이 마련돼 방문객에게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숲환경 공익 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잘 알려진 유한킴벌리와 함께 △숲속꿀잠대회 △친환경 캠페인부스 △숲테이위드미(유투브 영상) 제작 등 광릉숲의 친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2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시민 접근 편의를 위해 시는 진접역 6번 출구, 경복대학교(남양주캠퍼스), 군부대 주차장 3곳을 순회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광릉숲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광릉숲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준비했다"며 "올해 축제 2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메시지와 광릉숲 축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남양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легко и удобно! 경기도, 이주민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열어

Как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мог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более легко и удобно?

Иностранцы в Корее тоже хотят пользоваться финансовыми услугами, такими как интернет-банкинг, или 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интернет-сайтах, которые им нужны. Но из-за проблем, возникающих именно потому что они иностранцы, они не могут это делать. Чтобы уменьшить такие неудобства, Кёнгидо ведёт поиск решения.

3 сентября в городе Ыйджонбу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интеграции 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прошло итоговое собра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е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поль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услугами мигрантами Кёнгидо», где обсудили пути улучшения доступа к госуслугам для мигрантов.

Ранее в мае–июне Кёнгидо провёл опрос среди 494 мигрантов в пределах провинции, а также глубинные интервью с 20 участниками (мигрант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держки и сотрудниками госучреждений). В июле на промежуточном собрании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осно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я мигранты сталкивались с трудностями в пользовании госуслугами из-за: ▲слож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61,5%) ▲проблем коммуникации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многоязычных сервисов (57,2%) ▲недостатка информации (50,2%) и т. д.

Также были отмечены проблемы барьеров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в онлайн-сервисах и случа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мигрантов, требующие улучшения.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интеграции мигрантов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вший исследование,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представил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дач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госуслуг.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 Гён со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исключение мигрантов при онлайн-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пользовании госприложениями и финансовыми сервисами,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многоязычную поддержку и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способы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ичности. А также важно учитывать ситуацию мигрантов уже на этапе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политики, чтобы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ограничения системы,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Также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меры: расширение многоязычных инструкций и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через перевод, мобильные сервисы в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зонах для мигрантов, которым слож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в будни, ночные и выходные окна обслуживания, расширение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внедрение упрощённой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многоязычных инструкций и AI-чатботов как часть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ых сервисов.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услуг»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ипа пребывания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возраста ▲пола: для новых мигрантов — поддержка адаптации, для долгосрочных жителей — усиление поэтапной поддержки, включая уплату налогов и участие в местном самоуправлении....〈중략,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Олон нийтийн үйлчилгээг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ид ч мөн хялбар, ая тухтай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гоё! 공공서비스, 외국인주민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ид олон нийтийн үйлчилгээг хэрхэн илүү хялбар, ая тухтай ашиглах боломжтой вэ?

Гадаад хүн ч Солонгост интернет банк санхүүгийн үйлчилгээ эсвэл өөрийн хүссэн интернет сайтдаа гишүүнээр бүртгүүлэхийг хүсдэг. Гэвч гадаад хүн учраас тулгардаг асуудлын улмаас ашиглаж чадахгүй байна.

Ийм төрлийн хүндрэл, таагүй байдлыг багасгахын тулд Гёнги аймаг хариултыг олохын төлөө хүчин чармайлт гаргаж байна.

Гёнги аймаг өнгөрсөн 9-р сарын 3-нд Үйжонбу хот дахь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нийгэмд нэгтгэхийг дэмжих төвд ‘Гёнги аймгийн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олон нийт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хэрэглээний бодит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ны эцсийн тайлангийн хурл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олон нийтийн үйлчилгээнд хандах боломжийг сайжруулах арга замыг хэлэлцлээ.

Үүнээс өмнө Гёнги аймаг энэ оны 5–6-р сард аймгий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оршин суугаа 494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ийг хамруулан санал асуулга явуулж, мөн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ид, дэмжих байгууллагын төлөөлөл болон төр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тнаас бүрдсэн 20 хүнтэй гүнзгийрүүлсэн ярилцлага хийсэн бөгөөд 7-р сард дундын тайлангийн хурлаар гол бодит байдлыг танил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д,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ид олон нийтийн үйлчилгээг ашиглахдаа ▲төвөгтэй бичиг баримтын бүрдүүлэлт (61.5%) ▲олон хэл дээрх үйлчилгээ дутмаг байдлаас үүдэлтэй харилцааны хүндрэл (57.2%) ▲мэдээлэл дутмаг байх (50.2%) зэрэг шалтгааны улмаас бэрхшээлтэй тулгарч байгааг илэрхийлжээ.

Онла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гишүүнчлэлд бүртгүүлэх үйлявц дахь саад бэрхшээл болон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ад тохиолддог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тын туршлага ч мөн сайжр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асуудал гэж онцлон тэмдэглэсэн.

Бодит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 судалгааг явуулсан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нийгэмд нэгтгэхийг дэмжих төв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д үндэслэн олон нийтийн үйлчилгээг сайжруулан хэрэгжүүлэх ажлын даалгаврыг танил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ны ахлах ажилтан У Гён Сок захирал “Онлайн өөрийгөө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үйл явц, олон нийтийн аппликейшнд нэвтрэх, санхүүгийн үйлчилгээ ашиглах үед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г гадуурхалтаас хамгаалах үүднээс олон хэл дээрх дэмжлэг, орлуулсан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арга хэрэгслийг бий болгох хэрэгтэй” гэж онцолж,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х шатнаас эхлэн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нөхцөл байдлыг тусгаж, зөвхөн иргэд төвтэй засаглалын системийн дутагдлыг нөхө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хэлжээ. Мөн хэлний сад бэрхшээлийг арилгахын тулд олон хэл дээрх заавруудыг нэмэгдүүлэх, шууд орчуулгын дэмжлэгийн тогтолцоог бий болгохыг санал болгосон бөгөөд өдрийн цагаар үйлчлэх боломжгүй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төлөө аж үйлдвэрийн парк руу хөдөлгөөнт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х, шөнийн болон амралтын өдр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цонх, гар утасны аппликейшн өргөтгөх, хялбар баталгаажуулалт, олон хэлний гарын авлага, AI чатбот нэвтрүүлэх зэрэг дижитал үйлчилгээг өргөжүүлэх арга хэмжээг санал болгосон.

▲Оршин суух төрөл,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 ▲нас, ▲хүйсийн дагуу зориулалтын үйлчилгээний төлөвлөгөө боловсруулж, эхний шатны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ад суурьшилтыг дэмжих, удаан хугацаагаар оршин суугчдад татвар төлөх,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оролцоо зэрэг үе шаттай дэмжлэгийг сайжруулах агуулгыг мөн багтаасан.

Үүнтэй зэрэгцэн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омбузменийн тогтолцоо нэвтрүүлэх, иргэдийн өргөдөл, гомдолд хариулах гарын авлага боловсруулах, хувийн хэвшлийн дэмжих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н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нийгэмлэгийг дэмжих, олон нийтийн номын санг мэдээллийн төв болгон ашиглах зэрэг институцийн суурь бүрд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г онцолжээ...〈중략, 한글 기사 23면〉

2025
경기홈 페스티벌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Gyeonggi HOME Festival)
세계평화의 날 이민사회 축제
2025. 9. 21.(일) 11시~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MC & 축하공연 출연진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주 제
"Making HOME"
프로그램
기념식, 마술·개그 공연,
이민사회 공동체 선언,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축하공연, 다문화어린이 합창 등
경기홈페스티벌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 경기도
주최·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경기홈 페스티벌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Gyeonggi HOME Festival)
เทศกาลสังคมผู้ย้ายถิ่น ในวันสันติภาพโลก
2025. 9. 21.(SUN) 11~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พิธีกรและโชว์พิเศษจาก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ธีมงาน
"Making HOME"
ไฮไลท์ในงาน
พิธีเปิดงาน การแสดงมายากลและคลก การประกาศเจตนารมณ์ของ
ชุมชน การประกวดเต้นของเยาวชน
การแสดงพิเศษ การร่วมขับร้องเพลงเด็กๆของพหุวัฒนธรรม
QRสำหรับบล็อกข่าวสาร
ของเทศกาลคยองกีโฮม
후원 경기도
주최·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경기홈 페스티벌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Gyeonggi HOME Festival)
世界和平日移民社会庆祝活动
2025. 9. 21.(SUN) 11~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主持人&庆祝演出阵容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主题
"Making HOME"
活动内容
纪念仪式、魔术、小品演出、
移民社会共同体宣言、青少年舞蹈比赛、
庆祝演出、多文化儿童合唱等
京畿道家庭庆
祝活动博客
二维码
후원 경기도
주최·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경기홈 페스티벌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Gyeonggi HOME Festival)
国際平和デー 移民社会祭り
2025. 9. 21.(SUN) 11~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司会&祝賀公演出演陣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主催
"Making HOME"
プログラム
記念式、マジック、お笑い公演
移民社会コミュニティ宣言、
青少年ダンスコンテスト、
祝賀公演、多文化こども合唱など。
京畿HOMEフェスティバル
ブログへ
후원 경기도
주최·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민과 정책이 만난 '유아숲의 날'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아·학부모와 직접 소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일 별내중앙공원 내 별똥별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의 날'을 열고, 유아와 학부모 100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 유아숲 정책을 시민이 직접 경험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된 정책 체감형 행사다.

'유아숲'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시는 유아숲체험원 8개소를 운영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을 돕고 가족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유아숲지도사들이 직접 기획한 7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각 부스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개나리와 나뭇잎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체험으로 자연친화적인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숲지도사 7명을 직접 채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획과 운영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주광덕 시장이 직접 유아와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유아숲 교육 철학과 아동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주 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자연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시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아숲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유아숲체험원을 중심으로 산림복지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

남양주시, 9년 만에 "적자 누적에 불가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며,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으로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구조로 하수를 처리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 손실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61원 으로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월평균 요금은 1만1,760원에서 1만5,440원으로, 월 1,227원이 증가한다. 인상 후에도 요금은 평균 처리비용(1,773원)보다 낮다. 남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9년 동안 사용료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Public services, so that foreign residents can use them easily and conveniently!

How can we make public services easier and more convenient for foreign residents?

Foreigners also want to use financial services like online banking in Korea, or sign up for online services of their choice. However, they often face barriers due to their foreign status. Gyeonggi Province is working to find a solution to alleviate this inconvenience.

On September 3rd, Gyeonggi Province held a final report session on the "Survey on Public Service Utilization by Immigrants in Gyeonggi Province" at the Gyeonggi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in Uijeongbu City, where they discussed measure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public services for immigrants. Previously, Gyeonggi Province conducted a survey of 494 immigrants in the province between May and June, and in-depth interviews with 20 immigrants, support group representatives, and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The province presented key findings at an interim report session in July.

The survey found that immigrants faced difficulties accessing public services due to complex administrative documents (61.5%), communication difficulties due to insufficient multilingual services (57.2%), and a lack of information (50.2%). Barriers to online service sign-up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were also identified as areas requiring improvement.

The Gyeonggi Immigration Social Integration Support Center, which conducted a survey and research, presented actionable tasks for improving public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to prevent the exclusion of immigrants when performing online identity verification, accessing public apps, or using financial services, we must provide multilingual support and alternative authentication methods," said Oh Kyung-seok, the research director. "We must reflect the situation of immigrants from the policy design stage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an administrative system centered on citizens."

Furthermore, to address language barriers, the government proposed expanding multilingual guidance and establishing a real-time interpretation support system. Furthermore, it proposed expanding digital services, including mobile industrial complex services for immigrant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services on weekdays, nighttime and weekend complaint centers, expanding mobile apps, and introducing simplified authentication, multilingual manuals, and AI chatbots. The plan also includes a customized service roadmap tailored to different categories: ▲stay type ▲stay period ▲age ▲gender. This includes providing settlement support for early immigrant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long-term residents through stages such as tax payment and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In addition, the nee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was emphasize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n ombudsman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of immigrants, the development of a manual for responding to civil complaints, support for private support groups and immigrant commun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hubs utilizing public libraries.

Heo Young-gil, head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Policy Division, said, "We will carefully review the proposals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easy access to public services for all immigrants." We believe that an era of happier foreign residents in Gyeonggi Province is just around the corner. 〈한글 기사 23면〉

다문화 자녀, 정서적 성장·학습 동기 UP

광주시가족센터, 부모자녀 독서코칭 프로그램 성료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4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자녀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 지도 방법을 안내하고, 자녀를 대상으로 감정 공감, 창의적 표현 활동, 발표 경험 등을 통해 정서적 성장과 학습 동기 향상을 도모했다.

참여자들은 매회기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함께 읽고, 그에 따른 연계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또한, 직접 작성한 활동지를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모든 회기를 마친 참여자들은 "동화책이 재미있었다.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았다"라며 "글쓰기가 이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균형 있는 학습 성장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부모자녀독서코칭'과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속적인 결혼이민자 유입으로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초학습은 물론 문화.정서 교육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기반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은 연중 상시모집 중이며,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전화(070-4706-3618)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 어린이 등 대상 시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광주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별 접종 시기는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는 22일부터, 1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와 임신부는 29일부터 시작이다.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지역 내 12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권장된다.

광주시는 국가 지원과 별도로 주소지를 광주시에 둔 ▲64세 시민 ▲14~63세 심한 장애인(1~3급) ▲50~63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이번 절기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 대신 3가 백신이 사용된다. 3가 백신은 최근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Yamagata)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광주시 자체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모바일 앱 또는 광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9월 5일 광주시가족센터 교육장에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전문성 교육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전문성교육은 전년도부터 지침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의 복지 수요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전문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포터즈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특히 법적.행정적 정보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성 교육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자주 겪는 문제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배우자 사망 후 상속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서포터즈들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복잡한 한국 사회제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혼 후 체류자격 유지 요건이나 국적취득 관련 상담,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은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서포터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포터즈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대부분의 서포터즈가 이번 교육이 활동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겪는 법률.복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의 서비스가 필요한 광주시 관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광주시가족센터로 최소 2일 전까지 유선으로 서포터즈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Lễ hội HOME Gyeonggi 2025’ sẽ được tổ chức vào ngày 21 tháng 9... Nơi diễn ra lễ hội: ‘Gyeonggi – Ngôi nhà của tất cả mọi người’.

Khu lễ hội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tại tỉnh Gyeonggi sẽ được tổ chức, nơi cư dân Gyeonggi và người nước ngoài cùng nhau hiện thực hóa hòa bình và đa dạng văn hóa. Tất cả cư dân nước ngoài nên chú ý đến lễ hội lần này.

Tỉnh Gyeonggi (Tỉnh trưởng Kim Dong-yeon) sẽ tổ chức “Lễ hội Gyeonggi HOME 2025” tại Quảng trường Hòa bình Gyeonggi, tòa nhà Bắc Gyeonggi vào ngày 21 tháng 9, từ 11 giờ sáng đến 5 giờ chiều.

Lễ hội được tổ chức nhằm xây dựng “Cộng đồng Gyeonggi cùng phát triển và hòa hợp”, nơi người dân trong nướ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giao lưu và tận hưởng. Trong ngày hội này, sẽ có nhiều hoạt động vui chơi, điểm tham quan và ẩm thực đa dạng.

Các tiết mục biểu diễn đa dạng và sôi động sẽ

được trình diễnChương trình trước lễ khai mạc bắt đầu lúc 11 giờ sẽ bao gồm các tiết mục biểu diễn ảo thuật với chủ đề “Chúng ta là một”, cuộc thi nhảy dành cho thanh thiếu niên và lễ công bố Tuyên ngôn Cộng đồng Xã hội Người Di cư. Đặc biệt, chương trình trước lễ khai mạc còn có các tiết mục đa dạng dành cho mọi lứa tuổi và cả người dân địa phương lẫn người nước ngoài như: tiết mục hài của đại sứ quảng bá tỉnh Gyeonggi Ongals, biểu diễn truyền thống của đoàn múa Nepal, và biểu diễn ca sĩ Wan Yi-hwa người dân tộc Karen đến từ Myanmar.

Lễ kỷ niệm bắt đầu vào lúc 15 giờ sẽ có sự tham dự và phát biểu chúc mừng của ông Kim Dong-yeon, Tỉnh trưởng tỉnh Gyeonggi, và ông Jeong Seong-ho,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Ngoài ra, các dàn hợp xướng đa văn hóa đang hoạt động tại Ansan, Seongnam và Hwaseong sẽ trình diễn một buổi biểu diễn chung.

Buổi biểu diễn chúc mừng diễn ra sau đó sẽ kết hợp với chương trình phát sóng đặc biệt của đài OBS Radio. Các nghệ sĩ tham gia gồm ▲브브걸 ▲울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Singer Again 2). Bên ngoài sân khấu, tại các khu vực của sự kiện, sẽ có chợ đồ cũ, gian hàng cộng đồng và các xe bán đồ ăn phục vụ khách tham quan.

Các gian hàng ẩm thực, trải nghiệm và triển lãm sẽ

được mở!Sân khấu Hòa bình Gyeonggi sẽ tràn ngập các gian hàng với quy mô ấn tượng bao gồm ẩm thực, trải nghiệm, biểu diễn, quảng bá và triển lãm.

9 cơ quan liên quan, bao gồm Sở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Yangju, sẽ vận hành 11 gian hàng để giải đáp các thắc mắc đa dạng của cư dân nước ngoài. Bên cạnh đó, các tổ chức phi chính phủ như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Ansan, Trung tâm Gia đình Paju, Trung tâm Gia đình Seongnam (đội Ngoại kiều) sẽ tham gia với 42 gian hàng thuộc 17 quốc gia, đảm bảo phục vụ ẩm thực cho cả người dân trong và ngoài nước.

48 đội tham gia, chợ trời bán đồ cũ cho trẻ em dự kiến sẽ mang đến niềm vui khác biệt cho cả người dân địa phương và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tham quan vào cuối tuần.

Quan chức Tỉnh ủy Gyeonggi cho biết: “Ngày 21 tháng 9 là ‘Ngày Hòa bình Thế giới’ do Liên Hợp Quốc chỉ định. Chúng tôi hy vọng cả người Hàn và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cùng tận hưởng những hoạt động vui vẻ tại Gyeonggi – nơi trở thành ngôi nhà (HOME) chung của tất cả mọi người,” và “Chúng tôi mong rằng Lễ hội Gyeonggi HOME sẽ là khoảng thời gian ý nghĩa để mọi người hiểu và chia sẻ văn hóa của nhau.”Ngày 21 tháng 9, tất cả cư dân nước ngoài hãy tụ họp tại Quảng trường Hòa bình Gyeonggi!

〈한글 기사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เปิดเทศกาลผู้ย้ายถิ่นที่ให้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ร่วมกันสร้างสันติ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2025 คยองกี HOME Festival” เตรียมจัดขึ้นวันที่ 21 กันยายนนี้... มหกรรมเทศกาล ณ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บ้านของทุกคน”

มหกรรมเทศกาลผู้ย้ายถิ่นที่ชาว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และ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ได้ร่วมกันสานสร้างสันติ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

วัฒนธรรม กำลังจะจัดขึ้นที่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งานนี้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ท่านไม่ควรพลาด!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คิม ดงยอน) เตรียมจัดงาน “2025 คยองกี HOME Festival” ขึ้นในวันที่ 21 กันยายน ตั้งแต่เวลา 11:00 น. ถึง 17:00 น. ณ ลานสันติภาพคยองกี ภายในศาลาว่า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สาขาภาคเหนือ

เทศกาลในวันนั้นถูกจัดขึ้นเพื่อสร้าง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ชุมชนแห่งการเติบโตร่วมกันและความกลมกลืน” และเป็นกิจกรรมที่ให้ชาวเกาหลี 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สื่อสารและสนุกสนานร่วมกัน โดยภายในงานจะมีทั้งกิจกรรมสนุกๆ สิ่งน่าชม, และอาหารอร่อยหลากหลายให้ทุกท่านได้เพลิดเพลิน

จัดการแสดงที่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สนุกสนาน

กิจกรรมก่อนพิธีเปิดซึ่งเริ่มตั้งแต่เวลา 11:00 น. จะมีการแสดงมายากลภายใต้ธีม “เราคือหนึ่งเดียว”, การประกวดเต้นของเยาวชน, และการประกาศคำมั่นสัญญาของชุมชนผู้ย้ายถิ่น เป็นต้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กิจกรรมก่อนพิธีเปิดจะมีการแสดงคอมเมดี้ของ อองอัลสึ ทูต 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ารแสดงพื้นบ้านของวงเต้นรำเนปาล, และการแสดงร้องเพลงของ หว่านอีฮวา นักร้องชาวเผ่าคาริน จากเมียนมา ซึ่งเป็นกิจกรรมที่ทุกเพศทุกวัย ทั้ง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ร่วมสนุกได้อย่างหลากหลาย

ในพิธีรำลึกซึ่งเริ่มตั้งแต่เวลา 15:00 น. 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คิม ดงยอน และ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อง ซองโฮ จะเข้าร่วมและกล่าวเปิดงาน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จะมีการแสดงรวมของวงประสานเสียงพหุวัฒนธรรมจากอันซาน, ซองนัม และฮวาซอง

ในการแสดงเฉลิมฉลองที่จะจัดขึ้นต่อจากนั้น จะมีการถ่ายทอดสดพิเศษทางวิทยุ OBS ร่วมด้วย โดยมีศิลปินและวงดนตรี ได้แก่ ▲ BB Girls▲Ulala Session ▲In A Minute ▲อี มินจอง (จาก Sing Again 2) แสดงบนเวที นอกจากนี้ ในบริเวณงานรอบๆ เวที จะมีตลาดฟลีมาร์เก็ตมือสอง, บูธชุมชน, และฟู้ดทรัคให้บริการด้วย

เปิดพื้นที่สำหรับอาหาร, ประสบการณ์, และนิทรรศการ

จะมีบูธขนาดใหญ่เต็มพื้นที่ลานสันติภาพคยองกี ที่นำเสนออาหาร, ประสบการณ์, การแสดง, 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 และนิทรรศการ ให้ผู้เข้าร่วมได้สัมผัสอย่างเต็มที่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ยางจู รวมถึง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อีก 9 แห่ง จะเปิดบูธทั้งหมด 11 บูธ เพื่อตอบคำถามต่าง ๆ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ส่วนองค์กรภาคเอกชน เช่น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เมืองอันซาน, ศูนย์ครอบครัวเมืองพาจู, ศูนย์ครอบครัวเมืองซองนัม (ทีมบริ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จะเข้าร่วมจัดบูธรวม 42 บูธ จาก 17 ประเทศ เพื่อให้บริ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กิจกรรมสำหรับทั้งชาวเกาหลี 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มีทีมเข้าร่วมทั้งหมด 48 ทีม สำหรับตลาดฟลีมาร์เก็ตขายของมือสองสำหรับเด็ก ซึ่งคาดว่าจะมอบความสนุกสนานและประสบการณ์ใหม่ ๆ ให้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าพักผ่อนในวันหยุดสุดสัปดาห์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ศาลาว่า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วันที่ 21 กันยายนเป็น ‘วันสันติภาพโลก’ ที่องค์การ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ประกาศ เราหวังว่าทุกคนทั้ง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มาร่วมสนุกกับกิจกรรมที่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ซึ่งกลายเป็นบ้านของทุกคน” และเผยว่า “เราหวังว่างานคยองกี HOME Festival จะเป็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ความหมาย ให้ทุกคนได้เข้าใจและแลกเปลี่ยนวัฒนธรรมซึ่งกันและกัน”

วันที่ 21 กันยาย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ท่านมาพบกันที่ลานสันติภาพคยองกี! 〈한글 기사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국공립 신현어린이집' 개원해

광주시, 안전과 발달 맞춘 맞춤형 돌봄 제공

광주시는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1층에 국공립 신현어린이집을 새롭게 개원했다고 밝혔다.

9월 1일 개원한 신현어린이집은 전용면적 666.48㎡ 규모에 7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신 보육환경을 갖췄다.

또한, 장애아통합, 야간연장형 취약보육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정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아동 안전과 발달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행정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하여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번 개원으로 신현 지역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국공립 체제로 위탁 운영되며, 투명하고 공공성 높은 보육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공립 신현어린이집 개원은 양질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개최

9월 19일~21일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대

(재)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은 '제30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30주년을 맞아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시간의 성벽〉'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이 간직한 역사와 유산의 가치, 남한산성을 지킨 사람들을 조명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일인 19일(금)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개막 주제공연 '시간 위를 걷는 사람들'과 세계적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전통 국악부터 무예,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야간에는 광주의 전통주와 퇴촌 토마토 베이커리를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루브 in 산성'이 펼쳐진다.

또한 '역사 탐방 성곽 걷기 〈시간의 성벽〉', '선비·다례체험', '성곽길 도장 걷기', 'Together! 대동퍼레이드', '수어장대 1박 역사체험 치유캠프 〈성곽의 밤, 수호의 아침〉' 등 남한산성문화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도 풍성하다.

마지막 날인 21일(일)에는 조선시대 해장국 '효종갱 시식 챌린지'와 '대동굿'이 진행되며, 축제가 개최되는 3일 동안 남문주차장 일대에는 남한산성 상인협회가 운영하는 지역 특산음식 먹거리장터 '산성풍미'가 함께 열린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온 가족 참여 체험의 장...유대감 강화, 긍정적인 관계 형성 지원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다문화가족 12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소재 미리내힐빙클럽에서 '1박 2일 다문화가족 카라반 글램핑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에게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가족 여가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교육과 체험활동이 균형 있게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선사했다. 참가 가족들은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카라반 글램핑, 가족명랑운동회, 야외 물놀이, 포슬린아트.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했다.

한 베트남 가족은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카라반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이야기 나눈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야외 체험을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화합할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내외국인 문화소통, 다문화 수용성 확대...양평군가족센터 지역사회 사회통합 기여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7월 6일 '세계요리 체험'을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이해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더욱 크게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4가정이 참여했으며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4개국을 주제로 각 나라 음식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2회기씩 운영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모든 참여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통합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돼 서로의 문화를 직접 배우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기회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우영 센터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열린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사회 수용성과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1인가구 "혼자 먹지 말고 함께 건강하게"

하남시가족센터, 사회 관계 증진 연령별 맞춤 식생활 프로그램 진행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9월 2일부터 총 12회기 과정의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만성질환 위험 증가, 정서적 고립 및 사회적 단절이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가족센터는 1인가구가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식생활 개선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노년 세 연령층으로 구분해 총 12회기 진행되며, 총 29명의 1인가구 참여자가 연령대별 맞춤 커리큘럼에 따라 참여하고 있다.

청년부.중장년부 '오늘은 함께밥' ▲한끼 완성 밥상 ▲건강 브런치 세트 ▲한그릇 요리 시리즈 ▲주말 특별메뉴, 노년부 '오늘은 건강밥' ▲건강 간편식 ▲주말 특별식 ▲계절 맞춤식 ▲뚝딱 건강식 등의 주제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한 회기당 조리 메뉴를 기존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축소함으로써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참여자 간 소통과 식사 시간은 더욱 확대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가자가 가정에서도 직접 요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밀키트와 레시피를 제공해 일상 속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가족센터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 전문기관 '제맞밥상(제대로 맞춘 밥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참가자 맞춤형 영양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베트남 일상 담은 수채화로 공간 새단장해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예술 가득한 공간으로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8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베트남 수채화 전시의 전시작 일부를 교체하며, 공간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베트남 수채화 전시는 4월부터 운영 중이며, 이번 작품교체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진행됐다.

작품을 후원한 김재민 수채화 작가는 "그림은 생각보다 쉽게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금세 찾아오기 마련이라,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전시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교체는 총 17점의 전시작품 중 11점이다. 그림의 재배치로 자연스럽게 주제의 변화도 일어나 센터 내부 분위기도 달라져 그림을 감상한 한 이용자는 "'지난번 아이의 상담을 기다리면서 감상했던 바다 그림이 노을과 푸른 하늘로 바뀌었구나' 싶어 한참을 보았는데 이 그림이 곧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졌다"고 말했다.

김 작가의 수채화는 베트남의 일상과 문화, 사람들의 소소한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타문화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 3층과 4층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더욱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며, 방문객들에게 일상 속 문화적 여유를 선사하고 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4월 7일부터 김재민 작가의 후원으로 전시를 시작했으며,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자 12월 31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관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작품교체를 통해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께서 일상 속 작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문화와 정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의 문화교류와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 "착한소비로 따뜻한 나눔 실천해"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추석을 앞둔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스타필드 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2025년 더 좋은소비 페스타 in 하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하남시가 공동 주최하고, 스타필드 하남이 후원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56개사가 참여해 먹거리·생활용품·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된다. 소비가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좋은 소비'의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슈링클 키링 만들기 ▲타일 코스터 만들기 ▲병뚜껑 키링 만들기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벌룬 매직쇼 ▲마술 공연 ▲아쿠스틱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추석 시즌에 맞춰 보자기 선물포장과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 풍성한 즐거움을 더한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온라인 기획전(www.cindykate.co.kr)과 연계해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내 혈관 숫자는? 레드서클 캠페인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첫째 주)을 맞아, 9월 한 달간 지역 내 곳곳에서 '2025년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지표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의 기자

’京畿道移民女性咨询中心’，关怀在京畿道的移民女性困难

京畿道移民女性咨询中心开设，为移民女性提供专业咨询服务及能力提升项目

京畿道第一家专门负责移民女性的咨询机构"京畿道移民女性咨询中心(中心长李英雅)"于今年8月28日在军浦市堂洞开业，正式投入运营。

由"社团法人亚洲之窗"运营的京畿道移民女性咨询中心将通过翻译支援团，为需要帮助的移民女性提供多种咨询，并提供医疗支援、法律救助、紧急庇护所衔接等多种服务。

在当天的开业仪式上，首先观看了"通过视频听到移民女性的声音"，然后听取了内外宾的贺词。

中心负责人李英雅(音)通过工作报告表示:"京畿道移民女性咨询中心今后将不区分滞留资格，对暴力受害移民女性提供专业咨询服务"，"将通过这一措施，帮助移民女性和家庭恢复安全，恢复正常生活。另外，将组成翻译团，通过加强移民女性的能力，努力使自己自立。" 京畿道议会副议长郑允京(音)表示:"在首尔和仁川的移民女性咨询中心咨询案件中，京畿道移民女性占了相当一部分，这一点表明了设立专门中心的必要性"，"希望中心能够成为控制塔，为遭受暴力伤害、滞留资格、法律、医疗问题等多种困难的移民女性提供实质性的帮助"。

当天的开业仪式以与移民女性一起进行的脱口秀和揭牌仪式及纪念合影等环节圆满结束。由于中心空间较为有限，而前来祝贺的内外宾和移民女性又众多，现场一度十分热闹。

京畿道移民女性咨询中心由越南语、汉语、乌兹别克斯坦语、菲律宾语(英语)、泰语、西班牙语等可以进行多国语言咨询的专业人士提供暴力受害咨询和后续管理、心理恢复项目、法律咨询及衔接等综合服务，必要时还将与庇护所等相关机构联动。

移民女性工作日从上午9点到下午6点可以通过电话(031-429-7919)或访问接受咨询，通过翻译服务和danuri咨询中心(1577-1366,365天24小时)可以毫无语言障碍地使用。

当天出席开所仪式的京畿道移民社会局局长金元圭(音)表示:"祝贺京畿道移民女性咨询中心开所。该中心将成为京畿道实现多样性和包容性的重要基础"，"移民女性在韩国社会生活并不容易，面临各种困难。期待中锋能积极提供帮助。我们期待中心能够积极提供帮助，京畿道也将继续在道层面推动细致的政策支持，建设一个没有歧视和暴力的安全社会。"〈한글 기사 지난호 1면〉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бэрхшээлийг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 түшиж, дэмжинэ”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Гёнги аймгийн анхны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эд зориулсан тусгай зөвлөгөөний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х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 (төвийн захирал И Ён А)нь өнгөрсөн 8-р сарын 28-нд Гүнпо хотын Данг-донг хороонд үүд хаалгаа нээж, албан ёсоор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 эхлүүллээ.

“Ази цонх” ТББ-ын удирдлага дор ажиллаж буй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 нь орчуулга, хэлмэрчийн дэмжлэгийн багийн тусламжтайгаар тусламж хэрэгтэй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эд хүндрэл бэрхшээлгүйгээр төрөл бүрийн зөвлөгөө үзүүлэхээс гадна эмнэлгийн тусламж, хууль зүйн хамгаал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аралтай түр байртай холбох зэрэг олон төрлийн үйлчилгээг үзүүлдэг.

Тухайн өдөр төвийн нээлтийн ёслолын үеэр эхлээд “Дүрс бичлэгээр хүргэсэ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дуу хоолой”-г үзсэний дараа зочид, төлөөлөгчдийн мэндчилгээний үгийг сонссон юм. Төвийн захирал И Ён А тайлангийн үеэр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 нь цаашид орших суух эрхийн байдлыг үл харгалзан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сө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эд мэргэжлийн зөвлөгөө өгөх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нэ” хэмээгээд, “ингэснээр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 болон тэдний гэр бүл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сэргээж, хэвийн амьдралдаа эргэн орохоод нь туслах болно. Мөн орчуулга, хэлмэрчийн бүрдүүлж,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чадамжийг дээшлүүлснээр өөрсдөө бие даан амьдрахад нь хичээнгүйлэн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болно” гэж ярьлаа.

Төвийн нээлтэд ихээхэн хүчин чармайлт гаргасан Гёнги аймгийн хурлын дэд дарга Жон Юун Гён “Сөүл болон Инчоны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д ирсэн зөвлөгөөний ихэнх тохиолдлыг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 эзэлж байсан нь тусгай төв байг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г харуулж байна” хэмээгээд, “төв нь удирдлага,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өв болж,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өх, оршин суух эрхийн асуудал, хууль эрх зүй,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суудал зэрэг олон бэрхшээлтэй тулгарч буй цагаач эмэгтэй чүүдэд бодитой тусламж үзүүлнэ гэдэгт найдаж байна” гэж ярьлаа.

Тухайн өдрийн нээлтийн ёслол нь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тэй хамт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ток-шоу хэлбэрийн концерт, төвийн нэрийг албан ёсоор өлгөх ёслол болон дурсгалын зураг авалт зэрэг арга хэмжээг үзэр өндөрлөв. Төвийн байр харьцангуй жижигхэн байсан ч, нээлтэд олон хүндэт зочид боло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 ирснээр үйл явдал олны хөлд дарагдсан юм.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 нь вьетнам, хятад, узбек, филиппин (англи хэл), тайван, испани зэрэг олон хэлээр зөвлөгөө өгч чаддаг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г ажиллуулж, хүчирхийлэлд өртсөн эмэгтэйчүүдэд зөвлөгөө, хяналт, сэтгэлзүйн сэргээх хөтөлбөр, хууль зүйн зөвлөгөө болон холбох үйлчилгээ зэрэг цогц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дэг. Мөн шаардлагатай тохиолдолд түр байр болон бусад холбогдох байгууллагатай холбож өгдөг.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 долоо хоногийн ажлын өдрүүдэд өглөө 9:00–18:00 цагийн хооронд утсаар (031-429-7919) эсвэл ирж очиж зөвлөгөө авч болох ба орчуулга, хэлмэрчийн үйлчилгээ болон солонгос дахь цагаачдад зориулсан 24 цагийн зөвлөгөө, мэдээллийн утас болох Данури колл төвтэй (1577-1366, жилд 365 өдөр, өдөрт 24 цаг) холбогдсоноор хэлний саадгүйгээр хандаж болно.

Төвийн нээлтэд оролцсон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дын нийгмийн газрын дарга Ким ВонГю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зөвлөгөөний төв албан ёсоор нээгдсэнд баяр хүргэе. Энэхүү төв нь Гёнги аймгийн хувьд олон талт байдал ба хамтдаа орших үзлийг хэрэгжүүлэх чухал суурь болох юм” хэмээгээд, “Цагаач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амьдрал Солонгос нийгэмд амаргүй бөгөөд олон төрлийн бэрхшээлтэй тулгардаг. Энэхүү төв нь тэдэнд идэвхтэй тусламж үзүүлнэ гэдэгт найдаж байна. Мөн Гёнги аймаг нь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лт, хүчирхийллээс анги д, аюулгүй нийгмийг бүрдүүлэхийн тулд аймгийн төвшинд нарийн нягт бодлогын дэмжлэгийг үргэлжлүүлэн үзүүлнэ” гэж ярьлаа.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하남시청 031-790-6114 하남시가족센터 031-793-2993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031-8027-2099 하남성폭력상담소 031-796-1213 하남일자리센터 031-790-689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바리스타 교육'

평택시가족센터,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본격 시작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일 월드바리스타커피학원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을 잡(JOB)고(GO)!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커피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커피의 기본 이론부터 원두 이해, 에스프레소 추출, 라떼 아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또한,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카페 운영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 수업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그동안 카페 창업을 오랫동안 꿈꿔왔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긴다. 라떼아트나 전문적인 실습을 진행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앞으로 실습으로 실력을 쌓고 꼭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바리스타 자격증반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에어팝 "풍선아트로 웃음과 소통을"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12일과 26일 북부복지타운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운영 중인 에어팝(풍선아트 동아리)의 7~8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에어팝은 여름방학 4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모임을 이어갔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풍선아트를 통해 문화 체험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7회기에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요청으로 버블풍선 만들기 활동이 진행됐다. 아크릴 PVC 재질의 투명 풍선 안에 다양한 색상의 라운드 풍선을 넣어 완성하는 버블 풍선은 행사 장식이나 선물용으로 활용도가 높아 참가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8회기에는 풍선 라벤더 화분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라벤더 꽃 제작 방법을 배운 뒤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화분을 완성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여름방학 동안 잠시 쉬어갔던 풍선아트 동아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 시작하게 되어 정말 반갑다.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력이 모여 더 아름다운 작품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에어팝은 9월 작품 제작 활동과 함께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다가온'에서 열리는 나눔 팝업 행사에 참여해 풍선아트 재능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 요리 문화 체험의 장'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2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2층 실습실에서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 '한(韓) 그릇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음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크림 새우'와 '닭고기겨자냉채'를 함께 조리하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음식을 배우고 또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즐거웠다."고 밝혔다.

'한(韓) 그릇 이야기'는 초기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2회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결혼이민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받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23일에는 추석을 주제로 한 명절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군인가족 여름 계절체험학습 진행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30일 진위면에 있는 연이랑명주랑 체험장에서 관내 3군(육.해.공) 군인가족 15가족을 대상으로 3군 어울림 계절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날 육군3075부대, 해군제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3군 군인가족은 연자육 맛보기, 연잎 물놀이, 연 팥빙수 만들기 등 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한 참여자는 "군인가족은 비상근무나 경계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오늘 로그램에 참여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평택은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주둔한 전국 유일의 군사도시다. 평택시민들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2회기 동안 군인가족 가을 계절체험학습을 주제로 농장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공공서비스, 외국인주민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주민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최종보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맞춤형 지원 필요"

외국인주민이 어떻게 하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금융서비스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그 답을 찾는 노력을 진행 중이에요.

경기도는 지난 9월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했어요.

앞서 경기도는 지난 5~6월 도내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주민·지원단체 관계자·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요 실태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57.2%) ▲정보 부족(50.2%)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의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어요.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제시했어요.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대표는 "온라인 본인인증, 공공앱 접근,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주민 배제를 막기 위해 다국어 지원과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주민 상황을 반영해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안내 확대와 실시간 통역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평일 이용이 어려운 이주민을 위한 산업단지 이동형 서비스, 야간·주말 민원창구, 모바일 앱 확대, 간편 인증·다국어 매뉴얼·AI 챗봇 도입 등 디지털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안했어요.

▲체류 유형 ▲체류 기간 ▲연령 ▲성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해 초기 이주민에게는 정착 지원을, 장기 체류자에게는 세금 납부·주민자치 참여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와 함께 이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민간 지원단체 및 이주민 공동체 지원,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정보 허브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어요.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민 누구나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경기도라서 더 행복한 외국인주민의 시대,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어 28면, 러시아어 13면, 태국어 28면, 영어 15면, 몽골어 1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Дотоодын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хамтдаа энх тайван, соёлын олон төрлийг цогцлоох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наадам болно!

Гёнги аймагт нутгийн иргэд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ид хамтдаа энх тайван, соёлын олон төрлийг цогцлоох шилжин суурьшигчдын баярын наадам болно. Энэ удаагийн наадмыг бүх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ид анхааран үзэх хэрэгтэй бололтой.

Гёнги аймаг (аймгийн захирагч Ким Дүён) ирэх 9-р сарын 21-нд өглөөний 11 цагаас оройн 5 цаг хүртэл Гёнги аймгийн захиргааны умард байрлал дахь 'Гёнги Энх тайвны талбай'-д '2025 оны Гёнги Хоум (HOME) Фестиваль'-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на.

Хамтдаа өсөж хөгжиж, эв найрамдалтай орших 'Гёнги аймгий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ийг бүтээж, дотоодын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ж, хамтдаа хөгжилдөх арга хэмжээгээ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энэ баярт өдөр олон төрлийн сонирхолтой үзвэр, тоглолт, идээ ундааг хүргэхээр төлөвлөжээ.

Өнгө алагласан, хөгжил цэнгэлтэй тоглолтууд болох гэж байна

Өглөөний 11 цагаас эхлэх урьдчилсан арга хэмжээнд 'Бид нэг' сэдэвтэй илбийн тоглолт болон бусад үзүүлбэр, өсвөрийнхний бүжгийн уралдаан, цагаач иргэдий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эгийн тунхаглал зэрэг оло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багтсан. Яланг уяа энэ үеэр Гёнги аймгийн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элч 'Онгальс'-ын инээдмийн тоглолт, Балбын бүжгийн хамтлагийн уламжлалт бүжиг, Мьянмарын Кар ен угсаатны дуучин Ван Ихуа-гийн тоглолт зэрэг нас хүйс, гарал үүсэл үл харгалзан хүн бүр хамтдаа хөгжилдөн үзэх олон төрлийн тоглолт, үзүүлбэр өрнөх гэж байна.

Оройн 3 цагаас эхлэх ёслолын арга хэмжээнд Гёнги аймгийн захирагч Ким Дун Ёон болон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сайд Жон Сон Ху нар оролцож, баярын мэндчилгээ дэвшүүлэхээр төлөвлөгджээ. Мөн Ансан, Соннам, Хвасон хотууда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даг олон соёлт найрал дууны хамтлагууд хамтарсан тоглолтоо үзүүлэх болно.

Үүний дараа болох баярын тоглолтод OBS радио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олон нийтэд нээлттэй шууд дамжуулалт хослуулан явагдана. ▲BB Girls, ▲Ullala Session ▲In A Minute ▲И Мин Жон (Singer Again 2) зэрэг уран бүтээлчид оролцох бөгөөд тайзнаас гаднах талбайд ахин ашиглах бараа худалдааны зах, нийгэмлэгийн павильон, хоолны машин зэрэг олон сонирхолто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агдах юм.

Хоолны амт, сонирхолтой туршлага, үзэсгэлэнгийн олон талын арга хэмжээ болох болно

Гёнги Энх тайвны талбайг хоол, туршлага, тоглолт, сурталчилгаа, үзэсгэлэн зэрэг олон төрлийн асар том павильон дүүргэх болно.

Янжу Цагаач болон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албан зэргэг холбогдох 9 байгууллага 11 павильон ажиллуулж, гадаад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олон төрлийн сонирхсон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 өгөх бол Ансан хоты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дэмжих төв, Пажү хотын гэр бүлийн төв, Соннам хотын гэр бүлийн төв (гадна туслах баг) зэрэг хув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оролцож, 17 орны 42 павильон дотоод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хоол хүнсээр үйлчлэх юм.

48 баг оролцож, хүүхдийн дахин ашиглах бараа худалдаалах флимаркет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на. Энэ нь амралтын өдрөөр гарч ирсэн дотоод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эд өвөрмөц сонирхолтой туршлага өгөх биз.

Гёнги аймгийн захиргааны холбогдох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 "9-р сарын 21-нд НҮБ-аас тунхагласан 'Дэлхийн энх тайвны өдөр' тохиож байна. Одоо дотоод болон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хамтын гэр болсон Гёнги аймагт бүгдээрээ баярт арга хэмжээг хамтдаа эдэлж, нэг нэгнийхээ соёлыг ойлгож, хувь алцах утга учиртай цаг хугацааг өнгөрөөхийг хүсэж байна" гэжээ.

9-р сарын 21-нд бүх гадаад оршин суугчид Гёнги аймгийн Энх тайвны талбайд цуглаарай!

〈한글 기사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평택시가족센터, '미용사(헤어) 국가자격증반' 성료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31일 예인아카데미미용학원에서 '미용사(헤어) 국가자격증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은 약 6개월간 운영됐으며, 총 11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미용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은 커트, 펌, 염색 등 미용사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현장과 유사한 실습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거듭하며 실무 역량을 쌓았다. 특히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참가자 11명 중 4명이 최종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나머지 인원들도 시험 응시를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미용사 국가자격증반이라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함께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노력해서 자격증을 꼭 취득해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미용사자격증반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아버지들의 특별한 도전, 펜싱 체험!

평택시가족센터, 자조모임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30일 고덕국제펜싱클럽에서 영유아가 및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자조모임 11~12회기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을 운영했다. 이번 모임은 펜싱 원데이 클래스로 마련돼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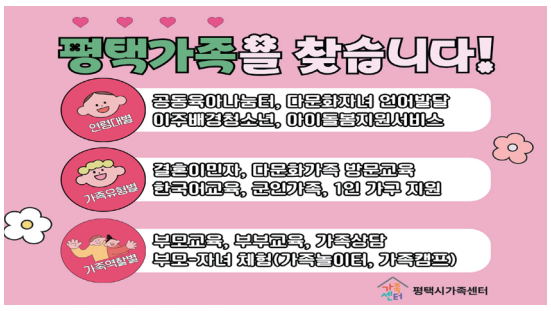
이날 프로그램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펜싱 종목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었다. 펜싱의 세 가지 종목인 사브르, 플뢰레, 에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사용 도구와 경기 규칙 등 기초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본 스텝과 자세, 기술 등을 익히고, 지도자의 지도로 개별 연습과 실제 경기를 경험하며 참여자들은 펜싱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구성원들이 로테이션을 돌며 서로 경기를 펼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점차 밝고 활기차게 바뀌었으며, 참여자들은 웃음과 응원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여자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 더욱 즐거웠다. 색다른 체육활동이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오는 9월 20일 자녀와 함께하는 농장 체험(고구마 수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 확대와 정서적 지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교육, 상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초등 자녀.부모 상담 사례 중심 슈퍼비전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12일 가족상담사 19명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2차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슈퍼비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상담 운영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에서 추천한 슈퍼바이저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구 마음을 잘 몰라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상담으로 슈퍼바이저는 사례 개념화 및 개입전략, 상담사의 반응에 대한 지도, 상담사의 경험 정도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상담사는 어린 자녀가 포함된 가족상담의 개입방법과 실제 적용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

가족상담사들은 "초등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개입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 고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해 가족상담의 역량이 강화되어, 보다 전문적인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상담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족상담 연 2회 슈퍼비전과 연 6회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2025
경기홈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페스티벌
(Gyeonggi HOME Festival)
Фестиваль сообщества мигрантов,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мира
2025. 9. 21.(SUN) 11~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Ведущий и состав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Тема:
“Making HOME”
Программа: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шоу магии и юмора, Декларация сообщества мигрантов, конкурс танцев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хо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детей и др.
Ссылка на блог фестиваля
후원 경기도
주최 · 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경기홈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페스티벌
(Gyeonggi HOME Festival)
ДЭЛХИЙН ЭНХ ТАЙВНЫ ӨДРИЙН ЦАГААЧДЫН НИЙГЭМ ФЕСТИВАЛЬ
2025. 9. 21.(SUN) 11~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ХӨТЛӨГЧ& БАЯРЫН ТОГЛОЛТ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Сэдэв
“Making HOME”
Хөтөлбөр
Хүндэтгэлийн арга хэмжээ,Ид шидийн тоглолт Цагаачдын нийгмийн нэгдсэн тунхаглал, өсвөрийнхний бүжгийн тэмцээн, Баярын тоглолт, Олон соёлт хүүхдүүдийн найрал дуу
Кёнги гэрийн наадам Блог руу оч
후원 경기도
주최 · 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경기홈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페스티벌
(Gyeonggi HOME Festival)
Lễ hội Gyeonggi HOME
2025. 9. 21.(SUN) 11~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MC và Khách mời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Chủ đề
“Making HOME”
Chương trình
Lễ kỷ niệm, biểu diễn ảo thuật và hài kịch Tuyên ngôn cộng đồng xã hội nhập cư và Cuộc thi nhảy thanh thiếu niên Biểu diễn chúc mừng và hợp xướng thiếu nhi đa văn hóa...
Truy cập blog lễ hội
후원 경기도
주최 · 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경기홈 Harmony Of Multicultural Everyone
페스티벌
(Gyeonggi HOME Festival)
International Day of Peace Immigrant Community Festival
2025. 9. 21.(SUN) 11~17시
경기평화광장(경기북부청사)
MCs & Performers
이창명 MC
브브걸
올랄라세션
In A Minute
이민정
완이화
Theme:
“Making HOME”
Program:
Opening Ceremony, Magic & Comedy Show, Declaration of the Immigrant Community, Youth Dance Contest, Celebration Performance, Multicultural Children's Choir, etc.
Visit the Gyeonggi Home Festival Blog
후원 경기도
주최 · 주관 (사)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교류와 소통의 장 '가족운동회'...특별한 추억 쌓기!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 비다문화 가족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며 어울려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9월 6일 소사벌레포츠타운 인조잔디구장에서 평택시 관내 다양한 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가족운동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 증진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장애물 달리기, 에어봉 릴레이 게임, 협동 서바이벌 게임 등의 다양한 게임에 참여하며 서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웃고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AK플라자 평택점의 후원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가족운동회가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후원해주신 기관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꿈을 그리다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두드림'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8월 30일 북부복지타운 내 강의실과 미노천연공방에서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집단상담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11명이 참여해 'VISION BOOK'과 '꿈통장'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쓰담쓰담 카드'를 활용해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친구의 꿈을 함께 응원하는 활동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직업체험으로는 '화장품 연구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카렌듈라, 자운고 등 천연 화장품 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오렌지 오일과 라벤더 오일을 사용해 향을 입히는 실습을 했다. 직접 만능연고와 자운고 연고를 만들어보며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체험해볼 기회였다.

참여자들은 "사람마다 다른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겼다."라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직업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환경교육 방향성 제고

평택환경교육센터, 다문화-환경교육 포럼

평택환경교육센터(센터장 장미정)는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평택환경교육센터 대강의실에서 제2회 평택환경교육포럼인 '융합교육, 다문화-환경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다문화-환경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향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안산시환경재단 사례와 평택환경교육센터의 다문화-환경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평택형 다문화-환경교육'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포럼은 유관기관 및 평택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며, 발제에서는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원 고문 유진이 교수가 다문화.환경교육 교차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충현 안산시환경재단 이사가 지역 기반의 다문화-환경교육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환경교육센터 홍지선 부장은 평택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며, 관련 교육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평택형 다문화-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평택 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기후 적응 식물로 우리 집 정원(화분 식재 체험) 만들기, 환경성 질환 예방 등 평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평택환경교육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과 실질적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평택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환경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내 환경 실천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다문화 감수성을 겸비한 소속 전문 강사단과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모델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031-664-2050 김영의 기자

한국민속촌 용인투어패스 할인

용인시, 시민의날을 관광형 축제로 확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30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9월 한국민속촌과 용인투어패스를 할인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지역 관광자원을 더욱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관광형 축제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민속촌은 30일까지 용인 시민에게 입장권을 21,000원의 특별가로 제공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용인시티포인트' 앱을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인투어패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할인 판매된다. 기본권은 2000원, 패키지권은 1000원이 각각 할인되며, 구매는 용인관광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서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용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대표 관광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관광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로 30회를 맞는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캐릭터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문화로 성장하는 용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용인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중심으로 전국의 다양한 캐릭터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캐릭터 축제로, 이상일 시장 아이디어로 올해 처음 열린다.

축제에는 용인의 교류도시,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역 대학 등 17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총 27종의 캐릭터가 함께 한다.

이틀간 진행되는 축제 현장은 제30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조아용 페스티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용인청년페스티벌 ▲용인먹거리페스타 ▲용인식품산업박람회 등으로 꾸며져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혼자여도 든든한 금융생활"

용인시가족센터, 1인가구 재무·금융교육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 1인가구 재무·금융교육을 통해 세대별 맞춤형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9~10월에 진행되는 교육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청년편은 9월 9일과 16일에 2회기로 교육이 시작됐다. '자산관리와 재무목표 설정', '안전한 금융투자'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방법, 가계부 작성 실습, 안정적인 투자 원칙 등을 배우며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된다.

중장년편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며 10월 1일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10월 21일과 28일, 총 2회기 과정으로 구성되며, 1회기에는 총 자산 진단과 현금흐름 점검, 정부 지원금 제도 활용 방법을 다룬다.

2회기에는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카드 사용 습관,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채무 관리, 금융사고 대처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학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중장년편의 경우 40~60대 1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용인시가족센터 3층 다목적 강의실2(수지구 법조로 230)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유지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생활 속 금융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형 교육"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Tỉnh Gyeonggi công bố báo cáo cuối cùng về khảo sát thực trạng dịch vụ công dành cho người di cư… “Cần mở rộng dịch vụ số và hỗ trợ phù hợp”

Người dân nước ngoài làm thế nào để có thể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một cách dễ dàng và thuận tiện hơn?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muốn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tài chính như ngân hàng trực tuyến tại Hàn Quốc hoặc đăng ký làm thành viên trên các trang web mà họ muốn. Tuy nhiên, vì là người nước ngoài, họ gặp phải nhiều khó khăn nên không thể sử dụng được. Để giảm bớt những bất tiện này, tỉnh Gyeonggi đang nỗ lực tìm ra giải pháp.

Vào ngày 3 tháng 9 vừa qua, tỉnh Gyeonggi đã tổ chức hội nghị báo cáo cuối cùng về “Khảo sát thực trạng việc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của người di cư tại Gyeonggi” tại Trung tâm Hỗ trợ Hội nhập Xã hội Người di cư Gyeonggi ở thành phố Uijeongbu, đồng thời thảo luận các phương án cải thiện khả năng tiếp cận dịch vụ công cho người di cư.

Trước đó, trong tháng 5 và 6, tỉnh Gyeonggi đã tiến hành khảo sát với 494 người di cư trong tỉnh, đồng thời thực hiện các cuộc phỏng vấn sâu với 20 người bao gồm đại diện tổ chức hỗ trợ người di cư và nhân viên cơ quan công, và thông qua hội nghị báo cáo giữa kỳ vào tháng 7, đã công bố những thực trạng chính.

Kết quả khảo sát cho thấy, người di cư gặp khó khăn khi sử dụng dịch vụ công do ▲thủ tục hành chính phức tạp (61,5%) ▲vấn đề giao tiếp do thiếu dịch vụ đa ngôn ngữ (57,2%) ▲thiếu thông tin (50,2%).Các rào cản trong quá trình đăng ký sử dụng dịch vụ trực tuyến và trải nghiệm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người di cư cũng được chỉ ra là những vấn đề cần cải thiện.

Trung tâm Hỗ trợ Hội nhập Xã hội Người nhập cư tỉnh Gyeonggi, nơi đã tiến hành khảo sát thực trạng và nghiên cứu, dựa trên đó đã đề xuất các nhiệm vụ thực thi nhằm cải thiện dịch vụ công.

Người đứng đầu nghiên cứu, ông Oh Kyung-seok, nhấn mạnh: “Để ngăn chặn việc loại trừ người di cư khi xác thực trực tuyến, truy cập các ứng dụng công cộng và sử dụng dịch vụ tài chính, cần phải cung cấp hỗ trợ đa ngôn ngữ và các phương thức xác thực thay thế,” đồng thời ông nói thêm: “Từ giai đoạn thiết kế chính sách, cần phản ánh tình hình của người di cư để khắc phục những hạn chế của hệ thống hành chính tập trung vào công dân bản địa.” Ngoài ra, họ đề xuất mở rộng các hướng dẫn đa ngôn ngữ để xóa bỏ rào cản ngôn ngữ và xây dựng hệ thống hỗ trợ phiên dịch trực tiếp.

Đồng thời, họ cũng đề xuất các phương án mở rộng dịch vụ số như: dịch vụ di động tại các khu công nghiệp dành cho người di cư khó tiếp cận vào các ngày trong tuần, quầy tiếp nhận hồ sơ vào buổi tối và cuối tuần, mở rộng ứng dụng di động, triển khai xác thực đơn giản, hướng dẫn đa ngôn ngữ và chatbot AI.

▲Theo loại hình cư trú ▲Thời gian cư trú ▲Độ tuổi ▲Giới tính, đã xây dựng lộ trình dịch vụ phù hợp: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cho người nhập cư mới, tăng cường hỗ trợ theo từng giai đoạn cho người cư trú lâu dài, như nộp thuế và tham gia quản lý cộng đồng.

Cùng với đó, cần nhấn mạnh việc thiết lập cơ sở thể chế như: đưa vào áp dụng cơ chế Ombudsman(옴부즈만) để bảo vệ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di cư, phát triển sổ tay hướng dẫn tiếp nhận khiếu nại, hỗ trợ các tổ chức tư nhân và cộng đồng người di cư, cũng như xây dựng các trung tâm thông tin tận dụng thư viện công cộng.

Ông Heo Young-gil,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Xã hội Người nhập cư tỉnh Gyeonggi, cho biết: “Chúng tôi sẽ xem xét kỹ lưỡng các đề xuất để tạo ra cơ sở giúp mọi người nhập cư đều có thể tiếp cận dịch vụ công một cách dễ dàng.”Tôi nghĩ rằng, nhờ có tỉnh Gyeonggi, một thời kỳ hạnh phúc hơn cho cư dân nước ngoài sắp đến rồi. 〈한글 기사 23면〉

เพื่อให้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เข้าถึงและใช้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ได้อย่างง่ายและสะดวก!

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ได้ง่ายและสะดวกมากขึ้นได้อย่างไร?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ต้อง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 เช่น 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บงก์กิง หรือสมัครสมาชิกในเว็บไซต์ที่ตนเองต้องการในเกาหลีเหมือนกั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งต้องเผชิญกับปัญหาที่ทำให้ไม่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ได้ และเพื่อคลาย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เหล่า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แก้ไขปัญหาเหล่านี้

เมื่อวันที่ 3 กันยายนที่ผ่านมา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จัดการประชุมรายงานฉบับสมบูรณ์เกี่ยวกับ “การสำรวจสถานการณ์จริง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 สาธารณะของผู้ย้ายถิ่น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ณ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สังคมผู้ย้ายถิ่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ในเมืองอียจองบู เพื่อหารือเกี่ยวกับ แนวทางปรับปรุงการเข้าถึง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สำหรับผู้ย้ายถิ่น

ก่อนหน้านี้ ในช่วง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ถึงมิถุนายนที่ผ่านมา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สำรวจความคิดเห็นผู้ย้ายถิ่นจำนวน 494 คน ในจังหวัด และสัมภาษณ์เชิงลึกกับผู้ย้ายถิ่น, ผู้แทนองค์กรสนับสนุน และเจ้าหน้าที่สถาบันสาธารณะจำนวน 20 คน พร้อมทั้งได้เผยแพร่รายงาน ผลการสำรวจเบื้องต้นแล้วเมื่อ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ผลการสำรวจพบว่า ผู้ย้ายถิ่นประส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 เนื่องจาก ▲เอกสารทางการที่ซับซ้อน (61.5%) ▲ปัญหาการสื่อสารจากการขาดบริการหลายภาษา (57.2%) ▲การขาดข้อมูลที่เพียงพอ (50.2%) เป็นต้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ประเด็นเกี่ยวกับอุปสรรคในการสมัครใช้งานบริการออนไลน์ และ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ถูกเลือกปฏิบัติ ซึ่งได้รับการชี้ว่าเป็น ประเด็นที่ควร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เช่นกัน

ศูน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สังคมผู้ย้ายถิ่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ซึ่งเป็นผู้ดำเนินการสำรวจและวิจัยครั้งนี้ ได้นำผลที่ได้มาเสนอเป็นแผนปฏิบัติการ เพื่อปรับปรุง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

ผู้อำนวยการโอ คยองซอก หัวหน้าทีมวิจัย กล่าวว่า “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กีดกันผู้ย้ายถิ่นในการยืนยันตัวตนออนไลน์, การเข้าถึงแอปพลิเคชัน สาธารณะ, และ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จำเป็นต้องมีการสนับสนุนหลายภาษาและจัดหาวิธีการยืนยันตัวตนแบบทางเลือก” พร้อมทั้งย้ำว่า “ตั้งแต่ขั้นตอนการออกแบบนโยบาย ควรสะท้อนสถานการณ์ของผู้ย้ายถิ่นเพื่อเสริมข้อจำกัดของระบบการบริหารที่มุ่งเน้นเฉพาะพลเมือง”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ได้เสนอให้ขยายคู่มือหลายภาษาและสร้าง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การแปลแบบเรียลไทม์เพื่อลดอุปสรรคด้านภาษา รวมถึงเสนอ แนวทางขยายบริการดิจิทัล เช่น การจัดบริการเคลื่อนที่ในเขตอุตสาหกรรมสำหรับผู้ย้ายถิ่นที่ไม่สะดวกใช้บริการในวันธรรมดา, การเปิด เคาน์เตอร์บริการในช่วงค่ำและวันหยุด, การพัฒนาแอปพลิเคชันมือถือ, การใช้ระบบยืนยันตัวตนแบบง่าย, คู่มือหลายภาษา, และแชตบอท AI เป็นต้น

รวมถึงการจัดทำโรดแมปบริการที่ปรับให้เหมาะสมตาม ▲ประเภทการพำนัก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 ▲อายุ ▲เพศ โดย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ด้าน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แก่ผู้ย้ายถิ่นใหม่, และเสริม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ป็นขั้นตอนสำหรับผู้พำนักระยะยาว เช่น การชำระภาษีและการมีส่วนร่วมใน กิจกรรมชุมชนท้องถิ่น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เน้น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จัดตั้งกลไกเชิงระบบ เช่น การนำระบบผู้ตรวจการ (Ombudsman) เพื่อคุ้มครองสิทธิ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การพัฒนาคู่มือ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ประชาชน,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งค์กรเอกชนและชุมชนผู้ย้ายถิ่น, รวมถึงการสร้างศูนย์ข้อมูลผ่านห้องสมุดสาธารณะ

ฮอ ยองกิล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กองนโยบายสังคมผู้ย้ายถิ่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เราจะตรวจสอบข้อเสนอเหล่านี้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เพื่อสร้างระบบ พื้นฐานที่ทำให้ผู้ย้ายถิ่น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เข้าถึง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

ดูเหมือนว่ายุคสมัยที่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สามารถใช้ชีวิตอย่างมีความสุขได้กำลังใกล้เข้ามาแล้ว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태안 일대에서 외국인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외국인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 교류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참가자들은 서산 해미읍성을 방문하여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신두리 해안사구 탐방을 통해 서해의 생태 환경을 즐겼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넘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와 장기자랑으로 국적과 세대를 넘어 문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땅콩빵 만들기와 맥주 헤어에센스 만들기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삽교호 함상공원 해양테마체험관을 탐방하며 해양 문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이번 1박 2일 캠프가 외국인주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문화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태국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즐기는 여름, 다채로운 프로그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8월 31일, 태국 자조모임과 함께 지역사회 수영장에서 여름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국인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문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재료로 쏨땀, 팟 카프리오 등 태국 전통 음식을 만들고, 태국 간식과 차키오 등을 함께 나누며 고향의 맛과 문화를 즐겼다.

또한, 자녀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태국 자조모임 리더들이 직접 기획한 게임도 진행됐다. '머리, 어깨, 무릎' 게임과 물풍선 왕복 게임 등이 진행되어, 같은 국적임에도 평소 교류가 적었던 가족 간에 화합과 호흡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 자조모임 리더는 "가족과 함께 여름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조모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자조모임을 통해 지역주민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용인시청 1577-1122 용인시가족센터 031-323-7133 용인교육지원청 031-8020-9113~4 용인생명의전화 1588-7262 031-898-2448 용인성폭력상담소 031-281-1366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89-2210 범죄신고 112 용인동부경찰서 031-1566-0112 용인서부경찰서 031-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연천군 9월에 '햇곡 율무 축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일원...건강 곡물 홍보

연천군은 지역 특산물인 율무가 오는 10월 햇곡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내 대표 율무 산지로 연천 율무의 전국의 55%, 경기도의 93%를 차지하는 규모로 연천 쌀, 연천 콩과 함께 연천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꼽힌다.

율무는 탄수화물(60~70%), 단백질(15%), 지방(5%), 식이섬유(10%) 등 풍부한 영양 성분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건강 곡물이다. 국내에서 주로 율무차 형태로 익숙하지만, 잡곡밥이나 죽으로 먹을 수도 있으며, 화장품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조선시대 문헌에는 한방재료로 사용된 기록도 전해진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미국 현지 한식당에서 자판기를 통해 제공된 율무차가 현지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율무차는 다양한 곡물이 혼합되어 달콤하게 즐겨지고 있으며, 10월 연천 전곡읍 전곡리 유적지에서 개최되는 연천 율무 축제에서는 농가들이 준비한 다양한 율무가공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율무와 율무가공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율무 장터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 율무 막걸리와 율무 들기름 비빔국수를 맛볼 수 있는 연천 주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농업정책과 김관종 과장은 "율무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며 " 앞으로도 연천 율무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5%

연말까지 월 구매 200만원...인센티브 혜택

연천군은 9월 1일부터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천사랑상품권 이용자는 연말까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 5%에서 10%로 증액된 데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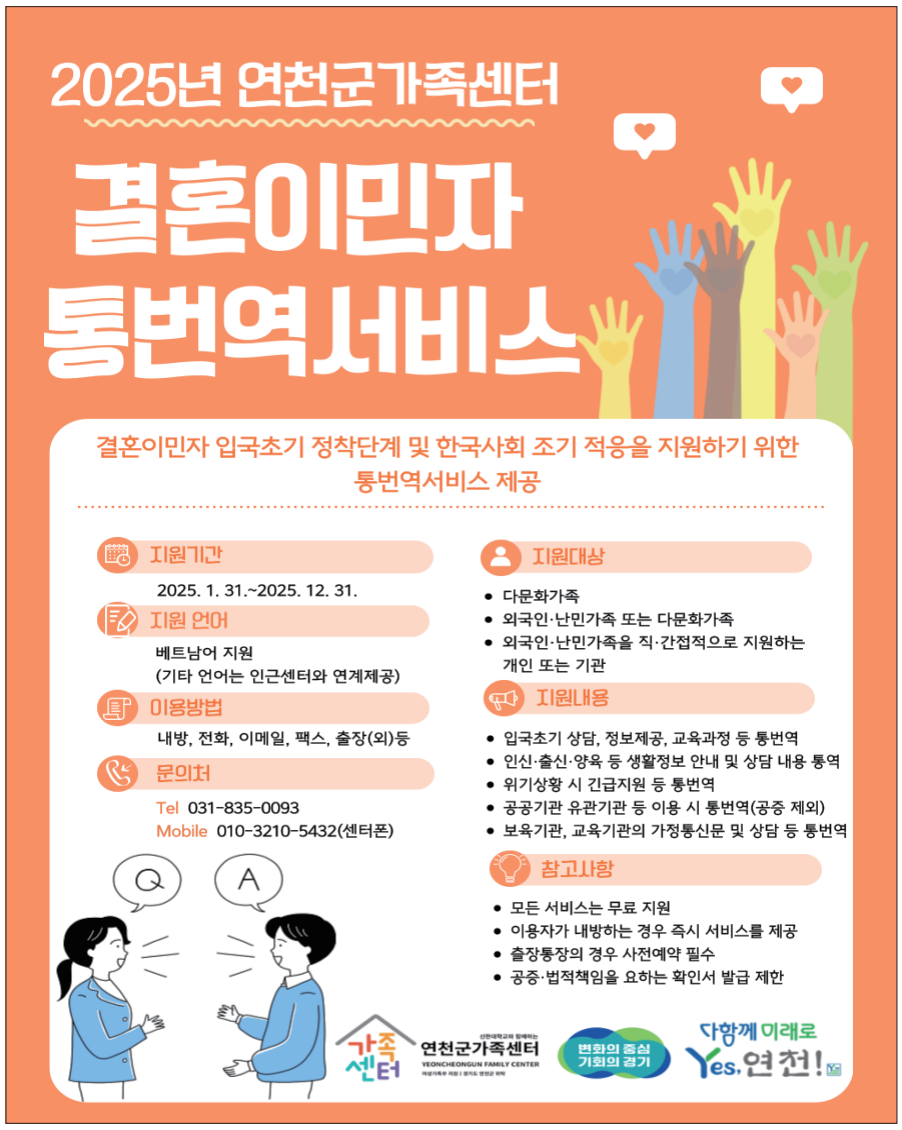
연천군은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가계 구매력 회복, 축제의 계절인 가을 지역 상권에 활력, 연말 소비 진작 등 소비 수요를 적극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군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혜택 상향은 가을철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과 함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역 광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소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천역 광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향상과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도농 상생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천에서는 나도 사장님'이라는 실습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과천시창업지원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 음식점 '밥먹자국밥집' 정영준 대표가 강의를 맡아 국밥 밀키트를 활용한 조리 실습과 창업 교육을 병행하며, 참여자 11명은 실제 창업자의 경험과 비결을 직접 배우게 된다.

과천시가족센터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창업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과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협력해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가족센터(02-503-0070)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과천시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천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과천시가족센터 다문화 부스 등 참여

과천시는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지난 6일 중앙공원 분수대 일대에서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과천'을 주제로 성별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 300여 명과 여성단체·동아리 회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세상을 바꾸는 3분 스피치'와 가야금·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가, 2부에서는 경기소리전수관의 민요 공연 '덩더쿵 축제'가 이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그림 작품 전시,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체험 공간 운영, 평등 토크카페, 다문화 체험,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등 15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우리는 양성평등 마을에 삽니다'라는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일·가정 양립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담이 공유돼 의미를 더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념사에서 "양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등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행복플러스 든든 라이프'

화성시가족센터, 안정적 한국생활과 미래설계 지원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플러스 든든 라이프(2)'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8명이 참여해 첫 회기를 함께했다.

박미경 센터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시작된 개강식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학습 여정을 시작했다. '미래설계1 :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첫 수업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박미경 센터장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당당하게 자리매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패키지는 8월부터 9월까지 총 9회기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미래설계(자아 탐색과 목표 수립), ▲부모교육(양육 역량 강화), ▲특강(자존감 향상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설계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한국 사회에 주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의 070-8831-8618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당신이 있어 행복"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6일 2차에 걸쳐 의사소통 및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를 진행했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이마고(IMAGO) 관계치료 기법과 심리극 기법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된 욕구의 탐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차 프로그램에서는 이마고부부대화법을 통해 일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실습 및 부부의 행복 비전 세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부는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답답했던 부부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것 같아 희망이 생겼다"라며 "앞으로는 일상에서도 배운 치유의 대화법을 실천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352-0304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100가정 참여 '다양하계 올림픽'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세대 간 유대감 회복 위한 운동회 개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9월 7일 화성시 봉담2지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 100가정이 함께한 '다양하계 올림픽'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신체활동을 통해 협력과 팀워크를 경험하고 세대 간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일상에서 부족하기 쉬운 가족 간 교류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어, 참가자들이 함께 뛰고 웃으며 공동체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날 운동회에는 총 106가정 280명이 참석해 다양한 체육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경기와 응원을 함께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더 큰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다.

강은이 센터장은 "모처럼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며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분들(업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한국어 교육 ▲진로 진학 상담 ▲취업 및 자립지원 ▲심리 정서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하며, 중도입국청소년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224-1101) 또는 홈페이지(www.globalyouth.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부모와 자녀 함께 '가족의 시간속으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9월 20일과 9월 27일 양일에 걸쳐,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차 9월 20일, 2차 9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그림책테라피를 통한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부모.자녀 대상)과 ▲TA드라이버 카드로 양육스타일 확인 및 건강한 양육방법 알아보기(부모 대상) ▲미술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하기(자녀 대상) ▲색채심리 및 팝아트로 가족액자 만들기(부모.자녀 대상) 등이 운영된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가족 사업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친밀감을 향상하여 화성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모.자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 가족센터 상담사례팀(070-7774-7088)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함께라서 조(부모).아(동)'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 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 간 긍정적 상호작용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8월 30일과 9월 6일 조손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건강 식습관.스트레칭 교육과 손자녀 그림책 만들기, 함께하는 베이킹 교실 및 포도 농장 체험 등이 진행됐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조손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세대 간 친밀감 향상과 가정 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관계망을 형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기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070-7774-708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동화책 펼치면, 부모 성장 시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경기육아나눔터 남양점은 지난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화책으로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교육'을 주제로, 전문 동화구연가가 동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팁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아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 속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접할 수 있었으며,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종료 후에도 부모들의 질문이 이어져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 참여자는 "성교육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오늘처럼 동화를 통해 배우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집에서도 바로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 신청해요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와 화성시가 지원하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으로 '제3회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그림그리기대회는 '우리가 함께 사는 동네'를 주제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민속 복장과 전통 교구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부스와 인생네컷 가족사진 부스 등이 운영된다. 초청공연으로 신나는 버블 매직쇼도 진행된다. 유치부, 초등부 60명을 사전접수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준비물은 개인 미술도구와 개인컵이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다문화.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동네의 모습을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은 11~12월에 전시될 예정이다. 031-352-1214 김영의 기자

전통노래·게임·퀴즈로 화합의 장

화성외복,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자국문화교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8월 31일 센터 3층 대강당에서 우즈베키스탄 공동체가 주관하는 자국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어 학습자와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 영상과 국가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전통 노래, 놀이, 퀴즈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공동체에서 전날부터 정성껏 준비한 샤슬릭을 숯불에 구워 함께 나누며, 음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문화교류는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우즈베키스탄 공동체와 한국 지역사회가 가까워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공동체별 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다문화 사회 속 상호 존중과 화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손녕희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교류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언어의 장벽 넘어 사람을 잇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브릿지 통역봉사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 소속 '브릿지 통역봉사단'은 지난 8월 31일, 화성시에서 열린 무료 의료봉사 나눔 행사에 참여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진료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내과·정형외과·치과·산부인과와 물리치료, 약제 처방, 정신건강 상담 등 총 7개 분야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동탄시티병원, 아미고병원, 디유치과의원, 원광종합병원, 화성시약사회, 경희의료원 등 관내 유관기관 의료진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8개국 8명의 브릿지 통역봉사단이 통역·안내·접수 등 현장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언어 장벽 없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브릿지 통역봉사단'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화성시가 지향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브릿지 통역봉사단의 헌신이 지역사회 내 상호 신뢰와 공존을 넓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손녕희 센터장은 "브릿지 통역봉사단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함께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초등 자녀와 아빠 함께한 특별한 하루

화성시가족센터, '아빠품앗이' 가족 특별 프로그램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30일 초등 자녀를 둔 '아빠품앗이' 참여 10가족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수업, 목공체험, 부모교육으로 구성돼 아빠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가족품앗이 중에서도 아빠가 주체가 되는 '아빠품앗이'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요리수업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함께 조리하면서 교감을 나눴다. 불고기부리또, 유부초밥, 레몬에이드를 직접 만들며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요리는 참여 가족이 함께 나누어 맛보며 활동 경험을 나눴다.

부모교육은 '소통법'을 주제로 아빠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대화법을 익히며 가정 내뿐만 아니라 다른 품앗이 가족과 교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배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녀들은 그림책과 연계한 목공수업에 참여했다. 딱따구리 도어노크를 제작하고 색칠하며 또래와 관계를 다지고 친밀감을 높였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과정은 가정 내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아빠품앗이 가족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빠와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만나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아빠들의 교류와 연대가 큰 힘이 된다.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양육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화성시가족센터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현재 총 9개 그룹, 26가족, 약 90명이 함께하는 아빠품앗이를 운영 중이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아빠들이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빠가 양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면서 지역사회의 가족 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맞춤형 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아빠품앗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가족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감동 선물

화성시가족센터, 건강한 여가 '온 가족 힐링 콘서트'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8월 30일 센터 1층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를 위한 '온가족 힐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피아노,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으로 구성된 4중주 공연으로 마련됐다. 오프닝 연주를 시작으로 캐논 변주곡, K-POP 데몬 헌터스의 'Golden'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연주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관객 요청곡이 포함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공연장에는 실내 텐트와 캠핑 의자가 설치돼가족 단위 관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힐링'의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지역주민은 "누워서 듣는 클래식 공연 참신하고 너무 좋았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며 "공간이 주는 편안함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화성시가족센터의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은 언제나 지역주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편히 오셔서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관련 문의는 친화사업팀(070-7774-7087)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여름 끝자락 "일상 속 작은 휴가 즐겨요"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29일 청.중년 1인가구 14명을 대상으로 '휴가,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손안의 미니 바캉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일상 속 작은 휴가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왁스공예 이해와 준비사항 안내 ▲해변 버전 디오라마 스케치 ▲왁스 작업 및 피규어 배치 ▲완성작 촬영 및 포장 순으로 나만의 미니 해변을 완성했다.

한 중년 1인가구 참여자는 "올해 휴가를 못 갔는데, 예쁜 바다를 만들면서 대리만족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만들기에 참여해 외로움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예 활동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실제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오는 9월 20일 제3회 1인가구 페스타를 개최한다. 070-8831-8624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미술멘토링으로 즐겁게 소통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6일 지역주민 멘토와 다문화가족 자녀 멘티 등 17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6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멘토 7명과 다문화가족 자녀 10명이 짝을 이루어 참여했으며, 컬러테라피 전문 강사의 지도로 '나만의 여권과 여행가방 만들기'를 주제로 미술 활동과 놀이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은 미술을 매개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지역주민이 1:1로 연결되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에게는 창의력 향상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고, 멘토에게는 다문화 이해 증진과 문화수용력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미술멘터링에 참여한 한 멘토는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던 아동이었는데, 미술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먼저 말을 걸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라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줄고 교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070-8831-8624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자녀, 이중언어로 실력 키우며 더 큰 미래로 나아가요”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초등부와 중고등부 16명 본선 경연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9월 13일 센터 5층 만세홀에서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황당연 화성시 여성다문화과장을 비롯해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오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장 등 내외빈과 다문화가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미경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이주배경 자녀들이 평소의 생각을 2개 언어로 발표하며 말의 힘을 느끼는 자리”라며 “이 아이들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격려와 환호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화성시는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도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오늘 행사는 단순히 언어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발표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자리”라며 “자신의 실력을 십분 발휘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화성시에 거주 중인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신청해 예선 경합을 통해 최종 16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 ▲나의 한국생활 등 자유로운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로 발표했다.

열띤 경연 결과 초등부 대상은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민히우(베트남어) 군이 차지했으며 중고등부 대상은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로 발표한 허소미(따갈로그어) 양이 차지했다.

특히 민히우 군은 한국과 베트남의 전쟁과 관련한 역사를 소개하며 당당한 표현으로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

초등부 최우수상은 남양초등학교 돈마리아(러시아어) 양과 중고등부 최우수상은 남양중 발레라 양이 차지했다.

화성시장상이 걸린 지도자상은 더큰이웃아시아의 심소영 씨와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의 김정희 씨가 차지했으며 화성시의회 의장상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김영찬 씨가 받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우수기관상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받았다.

이날 행사에 대해 황당연 과장은 “모든 이주배경 학생들이 똑똑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발표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화성시는 이들이 더 큰 인재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